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41호 【루계 제24919호】 주체104(2015)년 5월 21일 (목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사설

불타는 애국의 마음안고 증산돌격전을 힘있게 벌리자

지금 온 나라에 창조와 건설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고있다. 과학기술전당과 미래과학자거리,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청천강계단식발전소, 세포지구 축산기지, 평양시양로원 등 중요대상건설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있다. 흐르는 분과 초가 그대로 기적과 위훈으로 이어지고있는 공사장들에서는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기상이 나래치고 모든 일이 립체적으로, 전격적으로 벌어지고있다.

지난 2월 과학기술전당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창건 일흔돐을 맞으며 완공하여야 할 건설대상들이 많다고 하시면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여기에는 우리 인민의 강의한 정신력과 애국심을 최대로 분출시켜 뜻깊은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승리의 포성이 더 힘차게 울려퍼지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이 담겨져있다.

자재만 보장해달라, 이것이 긴장한 전투가 벌어지고있는 중요대상건설장들에서 울려나오는 불같은 호소이다.

우리는 온 나라에 증산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조국해방 일흔돐과 당창건 일흔돐을 높은 혁명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성대히 맞이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이미 마련된 자립경제의 토대와 온갖 잠재력을 최대로 발동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경제강국건설에서 전환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새로운 주체100년대가 거창한 창조와 세기적변혁으로 수놓아지고있다. 지난 시기에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통이 큰 작전들이 설계되고 10년이 아니라 1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천지개벽이 일어나고있다. 그 어디서나 젊음으로 비약하는 선군조선의 필승의 기상과 위용이 힘있게 떨쳐지고있는것이 오늘의 격동적인 현실이다.

조국해방 일흔돐과 당창건 일흔돐을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이기 위하여 우리 당은 올해에도 비상히 높은 투쟁목표를 내세웠다. 특히 우리 당은 뜻깊은 올해에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안아오기 위한 웅대한 구상을 펼치였다. 우리가 당의 의도대로 농산과 축산, 수산을 3대축으로 하여 인민들의 식생활수준을 한단계 높이고 인민들과 아이들에게 질좋은 소비품과 학용품, 식료품들이 더 많이 차례지게 하며 건설부문에서 조선속도창조의 열풍을 계속 고조시켜나가자면 결정적으로 증산하고 또 증산하여야 한다.

증산투쟁의 불길, 이것은 당의 부름에 심장을 내대는 우리 인민의 고결한 충정의 분출이며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세계를 앞서나가려는 강한 민족적자존심의 발현이다.

지금 당의 령도따라 총공격전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의 투쟁기세는 대단히 좋다. 백두산기슭의 발전소건설장으로부터 산골군의 자그마한 지방산업공장들에 이르기까지 이 땅 그 어디나 혁명열, 애국열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림업성아래 60여개 작업소들이 년간 산지통나무생산계획을, 운흥광산에서 상반년계획을 앞당겨 수행한것과 같은 놀라운 성과들이 날에날마다 전해지고있다. 석탄공업부문에서 4월에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9만여t의 석탄을 더 생산하고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서 년간계획완수자대렬이 계속 늘어나고있는것은 높은 증산성과로 뜻깊은 올해를 빛내이려는 우리 인민의 비상히 앙양된 투쟁열의의 뚜렷한 과시이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크나큰 심혈을 기울여 마련해주신 강력한 경제토대가 있으며 증산투쟁으로 혁명의 년대들을 세기적변혁으로 빛내인 자랑스러운 전통이 있다. 전후의 그처럼 어려웠던 시기에 6만t능력의 분괴압연기에서 12만t의 강재를 뽑아내고 19만t능력의 제철설비로 27만t의 선철을 생산하여 부강조국건설을 힘있게 추동한 애국투사들이 바로 우리 인민이다. 이런 불같은 애국충정과 혁명적열정이 세차게 분출될 때 우리에게는 뚫지 못할 난관, 점령 못할 요새가 있을수 없다.

오늘의 증산투쟁이야말로 천만군민이 당중앙과 사상과 숨결도 발걸음도 함께 해나가는 우리 일심단결의 위력을 만천하에 과시하는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이다.

우리는 허리띠를 조이며 다지고 다져온 토대와 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리용하여 생산을 최대한으로 늘여나감으로써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맞받아뚫고 승리만을 떨쳐가는 영웅적인민의 본때를 다시한번 높이 떨쳐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증산투쟁을 통하여 자신들의 당성과 혁명성, 애국심을 검증받겠다는 관점을 지니고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야 한다.

지금 우리 인민들은 어려운 속에서도 끊임없이 베풀어지는 당의 크나큰 은정에 격정을 금치 못해하고있으며 어머니 우리 당과 고마운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한몸바칠 일념으로 가슴끓이고있다. 당과 조국에 대한 충정과 헌신은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투쟁으로 나타나야 한다.

우리는 오늘의 증산투쟁이 당중앙의 절대적인 권위를 백방으로 옹위하고 선군조선의 비약의 기상을 높이 떨치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사업이라는것을 심장깊이 새겨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이 준 과업을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무조건 어김없이 수행하려는 철석같은 신념을 지녀야 한다. 뜻깊은 올해에 만풍년의 농악소리, 사회주의바다향기, 로동당만세소리가 온 나라에 차넘치게 할 투철한 각오를 안고 순간순간을 불같은 헌신과 애국으로 수놓아가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증산을 위한 사회주의경쟁을 맹렬히 벌려나가야 한다.

사회주의경쟁은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에 기초하여 생산에서 혁신적앙양을 일으키고 경제건설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대중운동이다. 사회주의경쟁의 열풍속에 생산의 끊임없는 장성이 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사회주의경쟁의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명심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벌려나가야 한다. 오늘의 시대적요구와 자기 단위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경쟁목표를 현실성있게 세우고 새 기준, 새 기록을 계속 돌파해나가야 한다. 누구나 매일매일 경쟁도표판에서 자기들의 실적의 높이, 애국충정의 열도를 총화하며 더 높은 증산성과를 이룩할 결심을 가다듬어야 한다.

공장, 기업소들호상간, 직장, 작업반호상간에 방조와 협력을 강화하여 경제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집단적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야 한다. 경쟁과정에 원료, 자재를 랑비하고 기계설비를 되는대로 다루면서 생산일면에만 치중하는 현상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경쟁에 대한 총화와 평가사업을 의의있게 잘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더욱더 분발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령도업적단위들이 사회주의증산경쟁에서 기수가 되고 본보기가 되여야 한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해나가야 한다.

오늘의 증산투쟁은 미제를 비롯한 온갖 적대세력들과의 치렬한 대결전이다. 지금 원쑤들은 우리 인민의 힘찬 진군을 가로막아보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고있다. 《정례화》, 《년례화》의 명목을 띤 끊임없는 전쟁연습소동과 온갖 비렬하고 끈질긴 경제봉쇄책동은 우리를 어떻게 하나 질식시키려는 적들의 흉심의 발로이다. 우리는 원쑤들이 발악하면 할수록 자기 힘을 굳게 믿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더 높이 발휘해나가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다!》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생산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켜 선군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더 높이 떨쳐나가야 한다. 오늘의 증산성과가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방해책동을 쳐갈기는 무서운 철추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백두밀림에 차넘쳤던 연길폭탄정신을 철저히 구현하여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모자라는것은 찾아내며 온갖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야 한다. 누구나 싸우는 전선에 총포탄과 식량을 마련하여 보내는 심정으로 하나라도 더 생산하기 위하여 아글타글 노력하여야 한다. 수입병을 철저히 뿌리뽑고 원료, 자재, 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해나가야 한다.

과학기술을 확고히 앞세워나가야 한다.

지난해 불리한 일기조건에서도 배천군에서 최고수확년도보다 7 000여t의 알곡을 더 생산하고 대관군이 산간지대농사에서 장훈을 부를수 있은 비결은 모든 농사일을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한데 있다. 수산과 석탄공업을 비롯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높은 생산실적을 기록한 단위들을 보면 례외없이 과학기술을 생명으로 틀어쥐고나가고있는 단위들이다.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키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이며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이다. 과학기술중시, 여기에 증산의 근본열쇠가 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과학기술중시이자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이라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증산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야 한다. 그 어디서나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적은 원료와 자재, 로력으로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생산물의 질과 량은 전적으로 생산자들의 기술기능수준에 달려있다. 누구나 과학기술보급실의 적극적인 리용자가 되여 높은 과학기술을 소유하며 자기 단위의 증산투쟁을 힘있게 떠밀어나가야 한다.

절약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

절약은 곧 증산이며 애국이다. 모든 부문에서 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려 원료, 자재의 긴장성을 자체로 풀어나가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자각과 책임감을 깊이 간직하고 국가재산을 자기의것처럼 소중히 여기며 무슨 일이든지 알뜰하고 깐지게 해나가야 한다. 전사회적으로 랑비현상을 철저히 없애고 극력 절약하는 기풍을 확립하여야 한다. 특히 건설부문에서 강재와 세멘트를 비롯한 건설용자재들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

일군들이 경제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드는것이 중요하다.

모든 일군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사업을 당앞에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각오를 가지고 증산의 가능성과 방도를 찾기 위하여 늘 머리를 쓰고 이악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있는 설비, 있는 자재, 있는 로력을 가지고 더 많이, 더 빨리 생산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박력있게 해나가야 한다. 책상머리에 앉아서 지시나 하고 조건타발이나 하는 구태의연한 일본새에 종지부를 찍고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대중을 발동하여 실적을 올리는 실천가가 되여야 한다.

우리 당은 하자고 결심하여 못해낸 일이 없으며 당이 번개를 치면 우뢰로 화답해나서는것은 우리 인민의 자랑스러운 투쟁본때이다.

모두다 뜻깊은 올해를 혁명적대경사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증산돌격전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자.

조선속도창조의 열풍을 고조시켜 비약과 혁신의 기상 나래치게 하자

당의 웅대한 구상따라 세계적인 관광도시를 일떠세우자

원산지구건설착공식 진행

우리 당의 웅대한 구상에 따라 원산지구가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일떠서게 된다.

원산지구건설착공식이 20일 갈마거리에서 진행되였다.

착공식에는 김용진내각부총리, 김광성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문명호 강원도당위원회 비서, 관계부문 일군들, 건설자들, 원산시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착공식에서는 김용진내각부총리의 보고에 이어 강원도인민위원회 위원장 한상준, 원산지구건설중앙련합지휘부 현장지휘부 책임자 엄태일, 황해북도려단 려단장 림현일, 평안남도려단 정치부장 계정남이 토론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건설사업에서 혁신을 일으켜 기념비적창조물들을 많이 일떠세우면 그만큼 강성국가의 기초가 튼튼히 다져지고 인민들의 행복의 터전이 훌륭히 마련되게 됩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원산지구를 훌륭히 꾸리는것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생전의 뜻이며 간곡한 유훈이라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 높은 뜻을 지니시고 원산지구를 세계적인 관광도시, 도시형성의 본보기로 꾸릴데 대한 통이 큰 작전을 펼쳐주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전당, 전국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최근년간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마식령스키장, 원산육아원, 애육원과 갈마식료공장, 원산구두공장을 비롯한 현대적인 건축물들이 원산지구에 일떠선데 대해 언급하였다.

그들은 당의 전투적호소를 애국의 피끓는 심장에 받아안고 전투장으로 달려나온 건설자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을 하루빨리 현실로 꽃피우겠다는 비상한 사상적각오를 가지고 산악같이 떨쳐나 대상건설 첫시작부터 집단적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든 건설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완강하게 맞받아뚫고나가며 일터마다에서 새로운 조선속도를 창조해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천년책임, 만년보증의 일념을 안고 선 하부구조, 후 상부구조 건설원칙과 공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최상의 질을 보장하며 건설자들이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고 최첨단돌파전과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말은 건설과제를 무조건 제기일에 수행할데 대하여 말하였다.

일군들은 건설전투조직과 지휘를 치밀하게 하고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밀고나가는 유능한 작전가, 완강한 실천가가 되며 각 도려단들에서는 건설자들이 당의 명령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모든 지혜와 열정을 깡그리 바쳐나가도록 하기 위한 혁명적인 사상공세의 된바람을 일으켜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건설투쟁에서 선군조선의 위력을 다시한번 힘있게 떨쳐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착공식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착공식이 끝난 다음 원산시 갈마거리입구 살림집들을 비롯한 건설대상들에 대한 공사가 시작되였다.

【조선중앙통신】

모내기전투에 모든 력량을 총동원

평안북도의 협동벌들에서

평안북도의 협동벌들에서 모내기전투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올해농사를 잘 지어 식량문제해결에서 전환을 이룩하기 위해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도안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강냉이심기를 끝낸 기세를 늦추지 않고 모내기전투에 진입하여 첫시작부터 기세를 올리면서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부문에서 물절약형농법을 비롯한 과학농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영농물자를 원만히 보장하며 생산조직과 지도를 실정에 맞게 하여 불리한 자연조건을 극복하고 알곡생산목표를 넘쳐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물절약형농법을 비롯한 과학농법들을 적극 받아들일데 대한 당정책을 높이 받들고 협동농장들에서 모내기를 질적으로 끝내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지난 10일 선천군 석화협동농장에서 도적인 모내기보여주기사업을 진행하고 일군들이 한개 시, 군씩 맡고 내려가 농업근로자들에게 앞선 벼재배방법인 이른큰모와 단지모를 내는데서 나서는 기술적문제들을 잘 알려주도록 하고있다.

모내기전투에서는 정주시와 신의주시, 운전군이 앞서나가고있다.

정주시에서는 남호협동농장에서 모내기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보여주기사업을 진행하였다. 여기에서는 이른큰모와 영양단지모를 내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알려주었다.

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시에서는 농촌지원조직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고있다. 그리하여 시급기관, 공장, 기업소일군들과 종업원들, 가두인민반원들을 비롯한 지원자들이 당면한 영농전투에서 한몫 단단히 하고있다.

모내기전투는 신의주시에서도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석하, 토성협동농장을 비롯한 시안의 모든 협동농장들에서는 논갈이와 마른논써레치기를 앞세워 모내기실적을 올리고있다.

운전군에서는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모든 협동농장들에서 모기르기 등 영농공정들에서 과학기술적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모내기를 힘있게 밀고나가고있다. 운하, 대오협동농장을 비롯한 군안의 모든 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자기의 실정에 맞는 벼재배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모내기를 불이 번쩍 나게 다그치고있다.

이밖에도 박천, 룡천, 염주, 철산, 동림군을 비롯한 도안의 다른 군의 협동농장들에서도 지난 10일부터 일제히 모내기전투에 진입하여 불과 며칠동안에 많은 면적의 논에 모내기를 진행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도인민위원회에서는 모내기전투가 시작된데 맞게 로력동원사업을 현실성있게 짜고들고있다.

많은 농촌지원자들이 농사를 함께 책임지는 립장에서 당면한 농사일을 적극 도와주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도예술단과 도예술선전대, 시, 군기동예술선동대를 비롯한 선전선동력량을 총동원하여 협동벌마다에서 화선식경제선동의 북소리를 높이 울리면서 혁신의 기상이 나래치게 하고있다.

도안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 지원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모내기실적은 날을 따라 높아지고있다.

특파기자 송창윤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을 적극 지원

각지 당원들과 근로자들

경애하는 원수님의 웅대한 대자연개조구상을 높이 받들고 각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불타는 애국의 한마음을 안고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을 물심량면으로 적극 지원하고있다.

최근에만 해도 많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세포전역에서 애국충정의 구슬땀을 바쳐가면서 축산기지가 은을 내도록 하는데 이바지하는 물자들을 마련하여 보내주어 돌격대원들의 기세와 열의를 한층 북돋아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구상대로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축산물생산과 기지운영준비를 착실하게 하여야 합니다.》

평양어린이과자공장 로동자 김순금동무는 세포전역으로 달려나가 헌신적으로 일하면서 세포지구 축산기지 토양의 영양물질함량을 결정적으로 늘이는데 절실히 필요한 질좋은 유기질비료를 비롯한 물자들을 지원하였으며 련못관 로동자 허경심동무도 돌격대원으로 일하면서 풀판의 지력을 높이고 물동수송을 원만히 보장하는데 이바지하는 많은 물자들을 지원하였다.

국가해사감독국 중앙해상환경보호조정소 장전금동무는 세포전역에서 날마다 혁신을 일으켜가면서 건축공사를 다그치고 수송을 제때에 보장하는데 필요한 많은 물자들을 지원하였으며 상업성 아래단위 로동자 배연동무와 의학과학원 약학연구소 연구사 림광철동무는 대규모축산기지건설을 앞당겨 끝내는데 필요한 많은 물자들을 지원하였다.

특히 락랑감자가공공장 로동자 장현진동무는 당의 대자연개조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돌격대활동을 힘있게 벌리면서 안해와 함께 마련한 많은 물자를 지원하여 살림집과 집짐승우리건설을 다그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보건성 보건경영학연구소 연구사 안영운동무는 여러가지 문화기재들을 보내주어 축산기지건설에 참가한 돌격대원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적극 기여하였다.

은하지도국 부원 최철남동무는 대규모축산기지건설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켜나가는 돌격대원들을 위하여 많은 후방물자들을 지원하였으며 대외경제성 부원 한은경동무도 축산기지건설장에서 혁신을 일으키며 동지들을 위하여 돼지와 물고기 등 많은 후방물자를 마련하여 돌격대원들의 사기를 높여주었다.

이밖에도 내각사무국 로동자 라봉영동무와 전자공업성 전자자동화설계연구소 설계원 윤일혁동무, 보건성 보건경영학연구소 연구사 조광철동무와 상업성 중앙출하도매소 로동자 김정실동무, 평양호텔 안내원 김현철동무와 옥류관 모란각 로동자 김순영동무 그리고 외교단사업총국 부원 함순애동무, 의학과학원 미생물연구소 연구사 윤학준동무와 방사선의학연구소 의사 김창렬동무, 금성청년출판사 론설원 김연희동무, 평천구역재판소 로동자 최영주동무와 량강도인민병원 의사 김철만동무를 비롯한 각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을 성심성의로 지원하는 애국적소행을 발휘하였다.

본사기자

높은 생산실적을 기록하며 힘차게 전진

차가평세멘트공장에서

차가평세멘트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세멘트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기 힘에 대한 확신, 제힘을 믿고 떨쳐나서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배심을 지니고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대고조의 진격로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공장참모부에서는 세멘트생산을 더욱 늘이기 위한 방도를 더 많은 원료, 연료, 소성로보수자재를 마련하는데서 찾고 년초부터 석회석과 석탄, 내화물을 확보하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렸다. 지난해말 공장의 광산분사업소에서는 8만산발파를 진행하여 올해 세멘트생산에 요구되는 석회석을 충분히 마련하였다.

공장참모부에서는 석회석을 지체없이 실어들이기 위한 수송조직을 실속있게 짜고들고 대형화물자동차다이야와 굴착기를 비롯한 륜전기재들의 부속품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하여 광산분사업소에 보내주었다.

세멘트생산의 선행공정을 지켜선 광산분사업소, 수송종합작업반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석회석생산과 수송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켜 올해 1.4분기동안에만도 1만 수천t의 석회석을 공장에 보내주었다.

도지방건설건재관리국의 지도밑에 공장의 일군들은 개천지구, 구장지구의 도중소탄광들에서 수천t의 석탄을 지체없이 실어들이기 위한 전투를 벌렸다.

지배인 리영호동무를 비롯한 공장의 일군들은 철도운수부문의 여러 단위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년간 세멘트생산에 요구되는 석탄전량을 실어들이기 위한 수송조직을 짜고들고있다.

기술과, 공무동력과의 일군들과 로동자들과 기술자들은 창조적지혜를 합쳐 소성공정에서 석탄의 연소효률을 높이고있다.

공장참모부에서는 내화물확보에도 큰 힘을 넣고있다.

공장의 일군들은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다!》는 투쟁의 구호를 높이 들고 지방원료에 의거하여 소성로보수에 필요한 내화벽돌생산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공장에서는 단천마그네샤공장과의 련계밑에 많은 량의 마그네샤크링카를 수송하여 내화물직장에 넣어주었다.

직장장 박영철동무를 비롯한 내화물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헌신적투쟁을 벌려 짧은 기간에 많은 량의 질좋은 내화벽돌을 생산하여 소성로보수기일을 훨씬 단축하면서 소성로의 만가동을 보장하는데 크게 한몫하고있다.

공장참모부에서는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 북부철길개건보수공사장, 도안의 10여개에 달하는 대상건설장들에 질좋은 세멘트를 제때에 생산보장하기 위한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고있다. 기사장 전룡훈동무를 비롯한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매달 세멘트생산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할수 있게 소성직장과 세멘트직장들에서 대형설비들의 기술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전개해나가고있다.

세멘트생산의 선행공정을 지켜선 광산분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더 많은 석회석을 확보하기 위한 20만산대발파준비를 다그치고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동세웅

당사업전반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자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 받들어

각지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우리 당의 숭고한 인민관을 당사업실천에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온 나라에 인민사랑의 따뜻한 정이 차넘치게 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어머니당의 본성에 맞게 당사업전반을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일관시켜 전당에 인민을 존중하고 인민을 사랑하며 인민에게 의거하는 기풍이 차넘치게 하고 당사업의 주되는 힘이 인민생활향상에 돌려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인민사랑의 대화원을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인민을 위하여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는 각지 당일군들의 투쟁기풍과 일본새에 대한 소식이 끊임없이 전해지고있다.

군중의 목소리에 일감이 있다
평성시당위원회 일군들

평성시당위원회 일군들에게는 따라배워야 할 좋은 기풍이 있다. 늘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애로되는 문제들을 알아보고 제때에 풀어주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를 쓰며 헌신하고있는것이다.

역전동과 문화동사이로 오가는 뻐스가 생겨나게 된 사연부터 보기로 하자.

사실 이 구간에는 무궤도전차가 달리고있었다. 그러나 여러가지 조건으로 손님들에게 불편을 주고있었다. 추운 겨울에는 걷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시당책임비서 김봉철동무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하루빨리 풀겠는가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시려객사업소의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였다. 그런데 그들의 대답은 씨원치 못하였다.

시당책임일군은 이런 방법으로 시려객 및 화물자동차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을 불러일으켜 역전동과 구월동사이로 오고가는 뻐스운행도 함께 무궤도전차가 달리는 구간을 걸었다. 그 길에서 대중의 목소리도 들었다. 그리고는 수리기지도 꾸리고 뻐스를 살리기 위한 전투에 달라붙었다. 일군들이 앞채를 메니 사업소종업원들모두가 떨쳐나섰다. 그 과정에 사업소에서는 2대의 뻐스를 살려냈다. 며칠후에는 여러대의 뻐스를 더 수리하여 운행을 보장하게 되였다. 주민들이 좋아했다. 그들의 기쁨넘친 얼굴을 보면서 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인민의 복무자된 영예를 가슴뿌듯이 느끼게 되였다. 이것은 시안의 일군들에게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지니고 일한다는것은 과연 어떤것인가를 알게 한 하나의 실례에 불과하다.

시당책임일군은 이런 방법으로 시려객 및 화물자동차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을 불러일으켜 역전동과 구월동사이로 오고가는 뻐스운행도 보장하게 하였다.

시안의 주민들의 물보장 역시 그러하다. 신명학동무를 비롯한 시당위원회일군들은 시수원지관리소 대동강치수작업반 성원들과 가족들에 대한 힘있는 후방사업을 진행하고 그들을 불러일으켜 2일만에는 고장난 설비를 보수하고 주민용물공급을 하게 하였다.

이런 실례는 많다. 시시설사업소종업원들이 생활상불편을 모르고 도로관리를 책임적으로 할수 있은것도 그렇고 중덕동, 양지동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고있는것도 시당일군들이 시안의 근로자들과 주민들속에 들어가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걸린 문제를 제때에 풀어나간것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지금 시당위원회일군들이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내세운 목표는 대단하다. 인민에 대한 참된 복무정신을 지니고 발이 닳도록 뛰고있는 시당위원회일군들의 사업기풍에 의하여 방대한 목표들이 하나하나 모가 나게 실현되고있다.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시안의 근로자들과 주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해 더 많은 일감을 스스로 맡아안고 앞장에서 뛰고 또 뛰며 헌신하는 당일군들을 대중은 따르기마련이다. 그러니 이런 사업기풍, 이런 일본새가 얼마나 중요한가.

본사기자 장철범

아빠트가 새 모습을 갖추기까지
흥남구역당위원회 일군들

《이전에는 생활에서 불편한 점이 많은 아빠트였는데 오늘은 누구나 부러워하는 정든 아빠트로 되였습니다.》

정든 아빠트, 이것은 천기동 55인민반 5층아빠트에 이곳 주민들이 붙인 대명사이다.

불편한 아빠트로부터 정든 아빠트로, 여기에는 어떤 사연이 깃들어있는가.

천기동 55인민반의 아빠트지붕으로 비가 새고 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현지에 나가본 흥남구역당 책임일군들은 생각이 많았다.

그래도 주민들은 일군들을 위로하는것이였다. 집주인들인 자기들이 자체로 보수할 생각을 하지 않고 구역일군들을 걱정시켜 미안하다고.

그 말을 들으니 얼굴이 달아올랐다. 차라리 당일군자격이 없다고 자기들을 욕이라도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날밤 구역당책임비서 박명호동무는 잠들수가 없었다. 지금껏 인민을 위해 일한다고 해왔지만 빈말에 지나지 않았다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뜻을 앞장에서 받들어야 할 책임일군의 자격이 없다고 자신을 타매하며 보수할 방도를 찾다나니 언제 새날이 밝았는지도 몰랐다.

다음날 열린 구역일군들의 협의회에 아빠트보수문제가 상정되였다. 인민에 대한 복무정신이 부족하였던 자신을 심각히 비판하고난 책임일군은 구체적인 조직사업을 하였다.

그날부터 구역당위원회, 구역인민위원회일군들이 직접 달라붙어 아빠트대보수를 시작하였다. 낡은 지붕을 들어내고 새 지붕을 씌웠다. 뽐프장의 물공급설비들을 보수하고 전기보장대책도 세워주었다.

훌륭히 보수한 아빠트에서 수도물까지 콸콸 쏟아져나오던 날 아빠트주민들은 로동당만세를 불렀다고 한다.

응봉지구, 송상지구의 수천세대 살림집개건에 이어 올해 시작한 후농동살림집개건전투에서도 구역당일군들은 진정을 바치며 헌신하였다.

당일군들이 인민을 자기의 친부모, 친형제, 친자식으로 보는 관점에 서야 일감이 보이고 헌신이 나온다. 류정샘물공급소, 천기샘물공급소 등 하루 20시간이상 무료로 샘물을 봉사하여 주민들의 호평을 받는 샘물공급소들에도, 천기지구의 로라스케트장에도, 사람들의 발걸음 그칠새 없는 은덕원에도 어머니의 심정으로 인민을 보살피는 구역당일군들의 헌신의 자욱이 비껴있다.

크지 않은 아빠트의 달라진 모습은 우리 당일군들의 량심에 묻는다. 동무는 인민을 자기의 친혈육으로 생각하는가, 인민을 위하여 무엇을 바쳤는가.

본사기자 김향란

종업원들의 밝은 얼굴과 생산성과
천내리세멘트공장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일군이라면 누구나 보다 높은 생산성과를 기대한다. 그러면 이를 위해 무엇을 먼저 보고 어떤 관점에서 일하는 것이 중요한가. 우리는 천내리세멘트공장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기풍을 놓고 그에 대한 답을 찾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인민의 요구, 대중의 목소리에 무한히 성실하여야 하며 언제나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인민의 참된 심부름군으로 살며 일하여야 합니다.》

초급당위원회에서 공장의 후방토대를 더 튼튼히 다지기 위한 문제와 관련하여 일군들의 협의회를 열었을 때의 일이다. 그때 모임참가자들속에서는 이런 의견이 제기되였다.

건설에 필요한 로력을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그만한 자금이면 생산설비의 현대화부터 해놓겠다. …

그만큼 초급당일군이 제기한 목표가 높았었다. 공장에 부족되는것이 많은것도 사실이였다.

초급당비서 김광철동무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후방사업이자 곧 정치사업이라고, 대중의 얼굴이 밝아야 그들의 정신력이 발동될수 있고 그 어떤 목표도 달성해나갈수 있다고 그는 확신성있게 이야기하였다.

이날의 모임을 통해 일군들은 생산과 현대화도 중요하지만 그 주인인 로동자들의 생활을 돌보는 사업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데 대하여 다시금 깊이 깨닫게 되였다.

곧 후방토대를 더 튼튼히 다지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벌어졌다. 이 사업의 앞장에는 늘 초급당일군들이 서있었다.

짧은 기간에 무난방박막온실이 표준설계대로 멋들어지게 건설되였다. 련이어 온실두동이 또 일떠섰다. 구멍탄생산기지가 현대화되고 버섯생산기지, 축산기지들도 단위의 실정에 맞게 훌륭히 개건되였다. 종업원들의 살림집건설도 추진되였다. 낡은 살림집들은 형체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수십동의 살림집들이 두달 남짓한 기간에 일떠섰다.

후방토대가 더욱 튼튼해지고 그 덕을 단단히 보게 되니 종업원들의 심정은 어떠했겠는가.

종업원들에 대한 복무관점의 높이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실례가 있다.

지난해 초급당일군은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을 돌아보면서 생각되는것이 많았다. 단순한 보금자리로만이 아니라 사상교양의 거점, 문화생활의 거점답게 훌륭히 꾸려진 합숙, 사회주의문명국으로 내닫는 우리 조국의 현실을 펼쳐보이는듯 밝게 웃으며 세상에 부럼없이 살며 일하는 방직공들의 행복한 모습, 그런데 우리 로동자합숙의 실태는…

다시한번 눈을 번쩍 뜬 초급당일군은 종업원들의 사상문화적수준이 높아지는데 맞게 로동자합숙을 비롯한 공공건물들을 문화생활의 거점으로 일신시킬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을 펼치였다. 두달도 되나마나한 사이에 도적으로 전형단위라고 소리칠만 하게 합숙이 훌륭히 개건되였다. 합숙생들이 좋아하였다.

그들만인가. 공장의 어디가나 밝고 명랑한 모습들뿐이다. 소성로에 가면 소성공들의 밝은 얼굴이, 석회석분광산에 가면 로동자들의 랑만적인 모습이, 생필직장에 가면 녀성로동자들의 웃음소리가 그칠줄 모른다.

그들은 가식없이 말한다. 생활환경이 좋아지니 일손도 흥겨워 오직 생산에만 전심하게 된다고.

초급당일군들이 종업원들의 가정을 수시로 찾아가 걸린 문제를 알아보고 제때에 풀어주고있는 사실들도 수없이 많다. 그러니 종업원들이 어찌 일에서 성수가 나지 않겠는가. 생산성과도 올라가고 생산설비의 현대화사업도 쭉쭉 풀려나갔다.

이곳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의 사업은 우리 일군들에게 무엇을 시사해주고있는가.

높은 생산성과를 바라거든 종업원들의 얼굴을 먼저 보라. 그리고 멸사복무의 관점을 가지고 헌신하라.

본사기자 전경서

《명처방》은 진정에 있었다
신계군산림경영소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당초급일군들의 모임이 끝난 뒤였다.

모체양묘작업반 당세포비서가 서성거리다가 속생각을 터놓았다.

《저 고동무문제말입니다. 당세포에서 단단히 취급할가 합니다. 다른 〈처방〉이 없을것 같습니다.》

그는 본인을 따로 만나 알아들을만큼 말해주었는데도 전혀 달라지는것이 없다고 하였다.

그무렵 양묘공 고동무는 그전과 달리 맡은 일에 몸을 푹 잠그지 않아 사람들의 말밥에 오르고있었다.

초급당비서 리재복동무는 결론을 서두르지 않았다.

두가지 리유가 있었다.

하나는 평소에 고동무에 대해 가지고있던 좋은 인상때문이였고 다른 하나는 가정방문을 해봤는가고 하는 물음에 씨원한 대답을 못하고 주밋거리던 당세포비서의 태도때문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묘술은 그 마음속에 있다.》

다음날 오후 초급당비서 리재복동무는 지배인 강석동무에게 자기의 결심을 이야기하고 시간을 내여 모체양묘작업반으로 나갔다.

그의 발걸음은 고동무를 처음 대상할 때 그가 나무모를 심던 곳으로 향하였다.

수수한 작업복을 걸친 리재복동무가 산림경영소에 갓 배치된 일군인줄 모르고 나무모를 심으면서 《잘 자라거라!》하고 조용히 뇌이고는 어린애마냥 정히 쓸어주던 그의 모습이 선히 떠올랐다.

푸르싱싱하게 자란 그날의 나무모들은 고동무에 대한 믿음을 더해주었다.

해가 산마루에 넘어가자 초급당비서는 당세포비서를 데리고 고동무의 집을 찾았다.

예측은 틀리지 않았다. 고동무가 그렇게 된것은 마음이 변해서가 아니라 가정사정때문이였다.

그의 안해가 병으로 앓고있었다. 고동무는 그것을 내색하지 않고 어린 딸을 돌보며 혼자서 어려운 살림을 해나가고있었다.

《이런줄도 모르고 난 동무를 속으로 좋지 않게 생각할번 했소. 일만 시킬줄 알았지 동무를 비롯한 양묘공들의 생활을 잘 돌봐주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오!》

준비해가지고온 수십kg의 강냉이를 내놓으며 하는 초급당비서의 말에는 진정이 어려있었다.

어안이 벙벙해있던 고동무는 불시에 눈물을 머금으며 말하였다.

《아닙니다. 나무모생산보다 집사정에 포로되여 마음이 나약해졌던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그 순간 당세포비서의 얼굴은 모닥불을 들쓴듯 뻘개졌다.

고동무가 평시에 말이 없고 수걱수걱 일을 잘한다고 하여 그의 생활에 관심을 덜 두었던 자신이 무슨 당초급일군이겠는가 하는 심한 자책으로 해서였다.

그후 당조직의 보살핌속에 고동무의 안해는 인차 병을 털고 일어났다. 고동무도 새로운 양기를 가지고 맡은 일에 전념하여 오늘은 모체양묘작업반의 분조장으로 성장하게 되였다.

그렇다.

《명처방》은 다른데 있지 않았다. 진정에 있었다.

본사기자 리정수

더 많은 인민소비품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동흥산은하피복공장에서— 본사기자 신충혁 찍음

두메산골의 언제가 전하는 사연
경원군 룡남농장 초급당위원회에서

인적드문 산중에 저수지가 생겨난 때로부터 어느덧 한해가 되여온다.

그러나 경원군 룡남농장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은 매번 새로운 심경으로 언제우에 서군한다. 출렁이는 물결이 실어다주는것은 잊을수 없는 추억만이 아니다. 매일, 매 시각 간직하고 살아야 할 당일군의 좌우명에 대한 절절한 깨우침이 그들의 가슴을 두드리는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인민들의 요구와 리익을 사업의 절대적기준으로 삼고 오직 인민들이 바라고 좋아하는 일을 하여야 하며 무슨 일을 하든 인민들이 덕을 보게 하여야 합니다.》

봄기운이 짙어가던 지난해 4월초였다.

산비탈을 내리는 초급당비서 홍춘식동무의 마음은 무거웠다. 골짜기를 따라 오붓이 들어앉은 10여채의 살림집들이 자꾸만 눈앞에 얼른거렸다. 장마철이면 큰물이 날 걱정에 잠이 오지 않는다는 녀인들의 목소리가 그냥 귀전에 울려왔다. 마을에서 수백m나 떨어진 오룡천에서 물을 긷군하는 주민들의 모습도 엇갈려 안겨들었다. 수도화가 실현된지는 오래되였지만 물량이 절대적으로 적어 그 덕을 크게 보지 못하고있었던것이다. 저수지공사를 더는 미룰수 없다는 생각이 굳어졌다.

그날밤 초급당비서사무실에서는 이윽토록 불빛이 꺼질줄 몰랐다.

저수지공사를 시작한다고 하여도 장마철전으로 언제건설을 끝내야 할텐데 두해동안 절반도 못 올렸던 언제를 불과 몇달동안에 쌓는다는것은 어림도 없다는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머지않아 모내기전투도 시작되겠는데 큰일을 먼저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일군의 제기에 초급당비서는 대뜸 놀랐다. 그가 말하는 큰일이란 당면한 영농전투를 의미할것이다. 하다면 10여세대 주민들의 큰물걱정이며 인민들의 물고생을 가셔주는 일은 작은 일이란 말인가 하는 생각에 절로 격해짐을 금할수 없었다.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위한 일에서는 큰것, 작은것이 따로 있을수 없소. 몇세대가 아니라 단 한세대를 위해서라도 저수지공사는 무조건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초급당비서의 눈빛에는 확고한 의지가 비껴있었다.

곧 언제건설을 위한 돌격대가 무어졌다. 작업량은 방대하고 시간은 긴장했다. 현장에서 침식하며 결사전을 벌리는 돌격대원들의 곁에는 늘 초급당일군들이 있었다. 다리가 붓도록 물속에서 함마를 휘두르며 암반을 까내고 중심강토의 진흙다짐을 위해 어깨에 멍이 들도록 질통을 지고 내달리는 초급당일군들의 헌신적인 투쟁모습은 돌격대원들에게 백배의 힘을 안겨주었다.

드디여 저수지공사가 끝난 그날 인민들의 환희는 얼마나 컸던가.

이제는 큰물이 날 걱정을 모르게 되였고 하루 24시간 수도물이 콸콸 쏟아지게 되였으며 6정보의 논을 새로 얻고 발판수에 필요한 물도 충분히 보장할수 있게 되였으니 이 언제야말로 보배언제라며 모두들 기쁨을 금치 못해하였다. 바다구경, 강구경을 못해본 산골사람들이 저수지에서 웃고 떠드는 모습을 바라볼때 초급당일군들의 가슴은 형언할수 없는 격정으로 한껏 부풀어올랐다. 인민들이 기뻐하는 여기에 당일군의 진정한 보람이 있음을 뜨겁게 절감하는 시각이였다.

초급당일군들은 언제를 무심히 바라볼수 없었다.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첫자리에!

바로 이 관점이 일떠세운 언제였다. 인민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무조건 끝까지 해야 하며 바로 거기에 당일군의 사명과 본분이 있음을 새겨주는 사연깊은 언제였다.

본사기자 김순영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위력강화조치에 함부로 도전하지 말아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성명

지난 5월 8일 성과적으로 진행된 우리 전략잠수함의 탄도탄수중시험발사는 주체조선의 군력강화에서 최절정을 이룬 또 하나의 일대 장거이다.

살판치는 부정의와 란무하는 강권과 전횡을 짓부시며 보란듯이 솟구친 선군조선의 무진막강한 위력의 과시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의 영명하신 장군께서는 천하가 환하게 호호탕탕 눈부신 웃음발을 날리시며 인공위성을 쏘아올린것에 못지 않은 경이적인 사변이라고 언명하신것이다.

세계가 놀라움과 부러움속에 환호하고 온 인류가 선망의 눈으로 바라보며 격찬하고있는것도 바로 그때문일것이다.

그러나 워싱톤과 도꾜, 서울을 비롯한 음침한 악의 소굴에서만은 삐뚤어진 심사가 내밴 악청들이 련일 쏟아져나오고있다.

미국은 우리 전략잠수함의 탄도탄수중시험발사가 완전성공하였다는 소식이 일파만파로 전해지자 그것이 국제사회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고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용납할수 없는 도전》이라고 악의에 차 줴쳐대고있다.

일본반동들은 우리의 시험발사성공이 곧 일본렬도에 대한 《새로운 위협》이며 《방관할수 없는 긴급사안》이라고 아부재기를 치고있다.

아연실색한 박근혜는 《비상외교안보장관회의》를, 청와대는 《긴급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저마다 서둘러 소집하고 《국회 국방위원회》까지 열어놓은 괴뢰들은 난데없이 《뒤통수를 얻어맞고 뒤북치는 격》이 되였다는 호된 비난을 받으면서도 체질화된 버릇대로 상전과 꼭같은 악청을 돋구어대며 쉬임없이 짖어대고있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위반》이고 저들에 대한 《가장 엄중한 도발》이며 따라서 《처절함을 감수하게 대응》하고 《국제적인 공조》분위기를 돋구어 《제재》와 《압박》의 도수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것이다.

가관은 박근혜가 직접 치마바람을 일구며 공식 및 비공식석상에 머리를 내밀고 《탄도탄발사를 막아야 한다.》느니, 《즉각응징태세를 갖추고있어야 한다.》느니 하면서 《결정적인 대응》을 줴쳐대는통에 괴뢰군부수장들이 휴가마저 중지하고 미제침략군놈들과 련일 머리를 맞대고 대응책마련에 급급해하고있는것이다.

대국이라고 하는 나라들도 쉽게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탄도탄수중시험발사의 완전성공에 혼비백산하여 상전과 괴뢰들, 그에 추종하는 온갖 불순세력들이 겨끔내기로 줴쳐대는 넉두리이고 복닥소동인것만큼 별로 새삼스러운것도, 놀랄일도 아니다.

하지만 주권국가의 정정당당한 자위력강화조치를 두고 그처럼 못되게 걸고들고있는 불순한 속통과 놀아대고있는 도전적인 행태에 대하여서는 그대로 스쳐지날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원칙적인 립장을 다시금 내외에 천명한다.

우리 전략잠수함의 탄도탄수중시험발사는 병진로선에 따른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자위력강화조치의 일환이며 전략적타격수단개발의 새로운 높은 단계이다.

우리의 핵타격수단은 본격적인 소형화, 다종화단계에 들어선지 오래다.

중, 단거리로케트는 물론 장거리로케트의 정밀화, 지능화도 최상의 명중확률을 담보할수 있는 단계에 올라섰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숨기지 않는다.

그 누가 《도발》이라고 걸고들고 《중지》하라고 고아댄다고 하여 포기할 일이 아닌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위력강화조치이며 합법적인 주권행사이다.

우리에 대한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온갖 불순적대세력들의 《위협》과 《공갈》이 계속되고 침략과 《제도전복》의 날강도적인 책동이 음으로 양으로 더욱 로골화되고있는 오늘의 세계에서 나라의 국방과 안전을 수호하고 민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국방력강화계획은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비상히 빠른 속도로 더욱 힘차게 추진될것이다.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온갖 불순적대세력들은 우리의 이 모든 자위력강화조치를 더이상 《도발》과 《위협》으로 함부로 걸고들지 말아야 한다.

자기를 지키는것은 인간의 본성이며 자주권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다.

이에 따른 우리의 자위적조치들을 《도발》과 《위협》으로 몰아붙이고 공정한 세계여론을 어지럽히는것보다 더 큰 죄악은 없다.

진짜 도발이라면 그것은 남의 땅에 침략무력을 끌고 와 우리 《수뇌부제거》와 《평양점령》을 노리고 벌리는 미국의 화약내풍기는 전쟁연습소동이며 진짜 위협이라면 때없이 핵전략폭격비행대와 핵항공모함전단을 비롯한 핵타격수단을 들이밀어 로골적으로 벌리는 공공연한 핵공갈소동이다.

권한도 없는 미국상전의 한 장성이 아무런 법적타당성도 없이 남의 령해에 그어놓은 불법무법의 유령선을 고수한다며 매일같이 매달리고있는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의 해상침범행위는 가장 전형적인 군사적도발이다.

도발을 일으키고 위협을 조성하는 장본인들이 그에 맞서 취하고있는 자위적인 행동을 《도발》로, 《위협》으로 강변하는것은 도적이 몽둥이를 들고 《도적이야.》하고 소리치는것과 같은 강도적인 처사라고밖에 달리는 평할수 없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결의》라는것을 《기준》으로 우리 전략잠수함의 탄도탄수중시험발사를 《도발》로, 지역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몰아붙이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처사에 대하여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더욱더 용납할수 없다는것이 우리의 립장이다.

그것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세계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게 된 자기의 사명과 헌장에 명기된 임무를 망각하고 미국의 독단과 전횡에 따라 움직이는 기구, 공정성과 형평성을 줴버리고 주권존중의 원칙, 내정불간섭의 원칙들을 스스로 포기한 기구로 전락되였기때문이다.

우리는 이 기회에 미국과 온갖 불순적대세력들의 도전이 쉬임없이 계속되는 조건에서 위력한 지상, 공중, 수중의 전략적타격수단을 기둥으로 자위적인 핵억제력을 비상히 빠른 속도로 더욱더 완벽하게 강화해나가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지이고 불변의 립장임을 다시금 밝히게 된다.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쑤인 미, 일반동들과 남조선괴뢰들, 모든 불순세력들은 우리의 신성한 령토, 령해, 령공을 노리고 《제도전복》을 꿈꾸는 침략자들의 준동을 짓부시고 민족의 존엄과 주권을 지키기 위해 마련한 우리의 위력한 타격수단들이 정면과 익측에서뿐아니라 등뒤의 임의의 장소에서도 명중탄을 안길 립전태세에 있다는것을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

주체104(2015)년 5월 20일
평 양

과학기술을 추동력으로 하여 석탄증산의 돌파구를 열어나간다

채탄장기계화를 이들처럼 짜고들자

남덕탄광 일군들의 사업에서

북창지구탄광련합기업소적으로 남덕탄광은 화력탄보장계획의 많은 몫을 담당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이곳 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지난해보다 1.3배이상 높아진 석탄생산계획을 매달 어김없이 수행하여 나라의 긴장한 전력문제해결에 떳떳이 기여하고있다.

얼마전 이곳을 찾았던 우리는 그 성과의 비결을 채탄장의 기계화실현을 방법론있게 밀고나간 이곳 일군들의 혁신적인 사업에서 찾아보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기술의 힘으로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키고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자는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입니다.》

지난해 가을 채탄장의 기계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고있는 순천지구 여러 탄광들을 찾았던 이곳 탄광일군들의 생각은 하나같지 않았다. 물론 채탄장마다에 관성식적재운반기, 장공천공기, 동력화된 동발회수기와 쟈끼, 톱들을 갖추고 적은 로력으로 채취률을 끌어올리고있는 그곳 탄광들의 경험은 긍정할만한것이였다. 그러나 그것을 탄광에 도입하는 문제에서는 서로 다른 의견이였다.

관성식적재운반기의 경우 일부 일군들은 순천지구의 탄광들과 우리 탄광의 탄층배렬이 다른 조건에서 별로 은이 나겠는가 하는 의견을 내비치였다. 또 다른 켠에서는 그 기계설비를 받아들이자면 채탄장공정관리를 기술규정대로 하면서 정상보수, 정상유지에 품을 넣어야 한다며 설비제작에 드는 품까지 고려해볼 때 아이보다 배꼽이 크다는 식이라고 도리머리를 저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대함에 있어서 탄광책임일군들의 립장은 확고하였다. 과학기술의 힘으로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높은 뜻을 다시금 새기며 책임일군들부터가 이번 기회에 채탄장의 기계화비중을 한계단 끌어올릴 결심을 열백배로 굳히였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당창건 70돐까지 모든 채탄중대들에 새 기계설비를 받아들일것을 결정한 탄광책임일군들은 그 시범단위를 선정하는데 각별한 힘을 넣었다. 참모부의 일군들이 탄광의 10여개 채탄장들을 구체적으로 돌아본데 기초하여 1갱 채탄1중대 채탄장이 시범단위로 정해졌다. 막장조건이 남달리 불리하고 이런저런 조건밑에 채탄장관리도 잘하지 않는 이 단위에서부터 기계화의 우월성을 시위한다면 그 감화력은 열백배로 더 클것이였던것이다.

참모부의 조직사업에 따라 이곳 막장에 내려간 일군들이 채탄공들에게 새 기계설비의 도입이 가지는 우월성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었다. 탄광일군들과 탄부들이 힘과 지혜를 합쳐가며 채탄장을 표준공법의 요구대로 개건복구하기 위한 불꽃튀는 전투를 벌리였다.

한편 탄광책임일군들은 탄광의 자금을 뚝 떼내여 새 기계설비제작용철판과 자재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일군들이 4.15기술혁신돌격대원들의 창조적열의를 적극 불러일으킨 결과 한개 채탄중대분의 기계설비일식이 짧은 기간에 제작되게 되였다.

지난 1월초 1갱 채탄1중대 채탄장에서는 새 기계설비들의 운영과 사용방법을 보여주는 사업이 진행되였다. 탄광일군들과 모든 채탄중대장들이 참가한 가운데 이곳 중대의 탄부들은 전진과 붕괴의 전 공정에서 새 기계설비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시위하였다. 전진막장에서 동력화된 동발회수기, 쟈끼, 톱을 리용하여 큰 품을 들이지 않고 동발드리우기를 진행한 그들은 장공천공기를 리용하여 순환당 진도를 오가드릴천공기때보다 배이상 높이였다. 붕괴막장에 설치된 관성식적재운반기를 리용하여 적은 로력으로도 탄차들에 제때에 탄을 적재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볼만 하였다. 이날을 계기로 더욱 분발한 이곳 중대의 채탄공들은 종전에는 막장조건을 운운하며 80%계선에 머물렀던 월 석탄생산계획을 1월에 130%이상 수행하는 기적을 안아왔다.

이날의 보여주기사업과 더불어 1갱 채탄1중대의 높은 생산실적은 탄광안의 모든 채탄중대들에서 새 기계설비도입열풍을 세차게 일으켰다.

일단 시작한 일이라도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전개하지 못하면 그 성과를 기대할수 없다. 탄광일군들은 탄부들의 앙양된 열의가 그대로 높은 석탄증산성과로 이어지는가 마는가 하는것이 자기들의 두어깨에 전적으로 실려있다는것을 명심하고 더욱 혁명적으로 일판을 벌려나갔다.

초기에 매월 2개 중대분의 기계설비를 제작할것으로 내걸었던 목표를 1.5배로 높이고 아직은 어려운것이 많은 조건에서도 탄광적인 힘을 기울여 필요한 강재와 자재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풀어주었다.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설비제작전투를 벌리는 4.15기술혁신돌격대원들을 찾아가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었고 때로는 중요자재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책임일군들이 먼길을 주저없이 달리고 또 달리였다.

새 기계설비도입의 선결조건을 채탄장관리의 변혁에서 찾은 참모부의 일군들은 채탄막장들에 수시로 내려갔다. 자신들의 실천적모범으로 모든 채탄중대원들이 종전의 낡은 관념을 대담하게 털어버리고 현행생산과 함께 막장의 정상관리, 정상유지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불러일으켰다. 5갱 채탄1중대장 김정철동무를 비롯한 채탄중대장들부터가 새 기계도입사업을 사활적인 문제로 여기고 중대원들을 불러일으킨 결과 탄광적인 채탄장관리와 유지사업에서는 비약이 일어나 짧은 기간에 대부분의 막장들이 표준구역으로 전변되였다.

그리하여 탄광에서는 지난 4월까지 11개의 채탄중대들의 채탄장들에 새 기계설비일식을 받아들이게 되였다. 이것은 그대로 채탄막장마다에서 높은 채취률을 안아왔으며 탄광이 긴장한 로력조건에서도 지난 시기보다 훨씬 높아진 화력탄보장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게 하는 추동력으로 되였다.

이 탄광 일군들처럼 당의 높은 뜻을 받들어 과학기술의 힘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 증산의 밝은 전망을 열어나간다면 온 나라 대고조전투장마다에서는 보다 큰 위훈과 기적이 창조되기마련이다.

본사기자 리병춘

과학기술보급실을 잘 꾸려놓고

형봉탄광 일군들

형봉탄광에서 과학기술보급실을 훌륭히 꾸려놓고 그 운영을 잘해나가고있다. 교대를 마친 탄부들과 일군들이 즐겨 찾으며 콤퓨터를 리용하여 여러 분야의 도서들을 열람하고 석탄생산과 관련한 과학기술을 터득하고있다.

한달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훌륭히 꾸려진 이 보급실은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모든 사업을 활력있게 밀고나가려는 이곳 탄광일군들의 진취적인 일본새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사회적으로 과학기술중시기풍을 세우며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구호를 높이 들고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현대과학기술을 열심히 배우도록 하여야 합니다.》

과학기술보급실을 거점으로 로동계급의 과학기술인재화를 다그칠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탄광에서는 지난 3월초 과학기술보급실을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으로 꾸릴 목표를 내걸었다.

석탄생산계획수행을 위한 긴장한 전투를 벌려가는 조건에서 한달이라는 기간에 과학기술보급실을 꾸린다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였다. 그러나 모든 탄부들과 일군들을 과학기술의 주인으로 만들어 석탄생산에서 보다 큰 성과를 안아오려는 탄광책임일군들에게 있어서 이 사업은 한시도 미룰수 없는 사업이였다.

책임일군들은 대담하게 종전의 보급실로 리용하던 곳이 아니라 모든 탄부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쉽게 찾아올수 있는 지령실 건물의 회의장소로 리용하던 어느 한 방을 과학기술보급실로 꾸릴것을 결심하고 설비구입을 비롯한 모든 사업을 립체적으로 밀고나가면서 걸린 문제들을 앞장에서 적극 풀어나갔다.

여러 공장, 기업소들을 찾아가 좋은 경험을 배워왔으며 탄광의 과학기술보급실답게 손색없이 꾸리기 위해 탄부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토론을 거듭하면서 지혜를 합치였다.

한편 지난 시기 갱내IP전화봉사체계를 비롯하여 탄광의 정보화실현을 위한 사업에서 좋은 경험을 가지고있는 장수정동무가 해당 과학연구기관 연구사들의 방조밑에 보급실운영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나가도록 하면서 충분한 자질도 갖추도록 하였다.

일군들의 말없는 헌신에 탄부들도 너도나도 떨쳐나 과학기술보급실꾸리기에 뜨거운 마음과 성실한 노력을 바치였다.

결과 이미 있던 장소가 아니라 탄부들이 쉽게 찾을수 있는 알맞춤한 곳에 콤퓨터들과 투영기, 카메라 등 모든 설비들이 그쯘하게 갖추어진 과학기술보급실이 번듯하게 꾸려지게 되였다.

탄부들과 일군들의 배우려는 열의를 북돋아주는 과학기술을 중시할데 대한 구호들과 함께 최근 탄광에서 이룩한 과학기술성과소개판과 착암기, 10t전차 등 석탄생산에 필요한 주요설비들의 부분품과 기술적특성을 보여주는 직관물로 벽면을 채우고 과학기술보급실에 앉아서 일군들과 탄부들이 탄광의 석탄생산실태를 실시간 알수 있게 하였다.

탄광에서는 지난 4월 중순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적인 보여주기사업이 진행되였다.

참가자들은 한결같이 어려운 조건에서 탄광일군들과 탄부들이 당의 전민과학기술인재화방침을 높이 받들고 결사관철의 정신,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특색있게 꾸려놓은 과학기술보급실을 돌아보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한달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과학기술보급실을 훌륭히 꾸려놓은 탄광일군들의 진취적인 일본새는 일군들이 실지 머리를 쓰고 땀을 바치며 발이 닳도록 뛰는것만큼 당정책관철에서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정경철

자력갱생이 제일

개천탄광에서

지금 탄광들에서는 장마철에 있을수 있는 피해를 막고 석탄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사업을 당과 국가앞에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패배주의, 보신주의, 요령주의를 철저히 없애고 모든 일을 혁신적으로, 과학적으로 전개해나가야 합니다.》

얼마전 개천탄광을 찾았던 우리는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난 시기 이맘때면 지배인과 자재업무일군들이 뽐프, 압축기 등 필요한 설비부속품들을 미리 장만하기 위하여 발이 닳도록 뛰여다니였다고 한다.

10여종의 뽐프부속품들과 압축기부속품들, 전차, 탄차부속품을 제때에 해결하여 갱들에 넣어주자면 주변의 탄광기계공장들과 편관단위의 공장들에 나가 살다싶이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올해에는 사정이 달라졌다. 탄광의 공무직장에서 전차, 탄차바퀴는 물론이고 압축기부속품들 지어는 뽐프날개바퀴를 비롯하여 필요한 모든 설비부속품을 손색없이 만들어내고있다.

결국 설비부속품을 해결하기 위해 일군들이 편관단위 공장들로 분주히 오가던 일이 지나간 일로 된것이다.

비결은 공동구호의 요구대로 탄광일군들이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생산정상화의 동음, 사회주의전진의 동음을 세차게 울리기 위하여 혁신적으로 사업한데 있다.

탄광들에서 장마철에 물에 의한 피해를 막자면 뽐프들을 주요개소들에 집중배치하고 만가동시켜야 한다.

이런 사활적인 요구로부터 당조직의 지도밑에 탄광에서는 자체의 기술력량을 강화하여 뽐프부속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사업을 꾸준하게 벌려왔다.

해당 과학연구부문 연구사들의 방조밑에 뽐프의 능률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수년간 벌리였다. 이 과정에 핵심적요소인 뽐프날개를 자체의 실정에 맞게 개조하는데 성공하였고 기술력량도 강화되게 되였다.

주강품만 기술적요구에 맞게 부어내면 자체로도 얼마든지 뽐프부속품을 만들수 있게 되였던것이다. 그러자면 이미 있던 주강로를 중주파유도로로 바꾸어야 하였다.

사실 탄광자체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면 힘에 부치고 기술적으로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았다. 하지만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이곳 일군들은 중주파유도로를 놓기 위한 사업에 달라붙어 끝장을 보았다.

중주파유도로가 설치되여 질좋은 첫 쇳물을 뽑아낼 때 일군들과 기술자들, 공무직장 로동자들의 기쁨은 이만저만이 아니였다.

이제는 전문공장에서만 생산할수 있다던 뽐프부속품들과 전차, 탄차바퀴를 비롯한 설비부속품들을 마음먹은대로 생산할수 있었기때문이였다.

탄광에서는 여기에 만족한것이 아니라 설계에서부터 마지막생산공정에 이르기까지 현대적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부속품가공의 정밀도를 최대로 높이고있다.

많은 전기, 로력, 자금을 절약하면서도 필요한 모든것을 전문생산공장에서 만든것 못지 않게 척척 생산하니 얼마나 좋은 일인가.

더우기 생산과정에 설비운영에서 나서는 실천적문제들이 제때에 설계에 반영되고 갱신되기때문에 제품의 질이 리용자들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높아지고있다.

탄광의 현실은 일군들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으로 부족되는 모든것을 자체로 해결할 결심을 안고 꾸준하게 달라붙으면 응당한 결실이 맺어진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강명천

정보화실현으로 얻은 증산예비

제남탄광 일군들의 사업에서

제남탄광에서 생산경영활동의 정보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 석탄증산투쟁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탄광에서는 최근 년간 IP카메라를 리용한 현장원격감시체계와 벨트콘베아운전지휘체계를 실현한데 이어 탄광참모부서들과 갱사무실들을 포함하는 원격화상회의체계를 확립하였다. 이와 함께 콤퓨터에 의한 일생산 및 재정총화공시체계를 수립한데 기초하여 탄부들에 대한 생활비지불과 우대물자공급사업을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개선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과학기술을 생명으로 틀어쥐고 우리 식의 현대화, 정보화를 적극 다그치며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과학기술수준을 높이고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모든 사업을 활력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탄광의 정보화실현에서 이곳 일군들이 중시한것은 언제나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자기 단위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진행되도록 사업을 주도한것이다.

현장원격감시체계도입문제가 일정에 올랐을 때 탄광에는 상사식감시체계를 받아들일것을 전제로 하여 정보실장 리종덕동무가 작성하였던 설계문건이 있었다. 일부 일군들은 그 설계대로 추진하자고 하였지만 책임일군들의 생각은 달랐다. 설계가 나왔지만 방대한 2단계 벨트콘베아공사완공까지 몇년을 흘려보냈고 또 그 기간 참모 및 업무부서들이 콤퓨터망으로 련결되는 등 정보화를 위한 탄광의 물질기술적토대에서도 변화가 있었던것이다.

한학종동무를 비롯한 책임일군들은 해당 기술자들과 무릎을 마주하였다. 끊임없이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으면서도 현재 탄광의 정보화토대를 최대한 리용하는 방향에서 설계를 완성하도록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일군들이 뛰며 기술자들이 해당 과학연구부문들과 필요한 련계도 가지도록 밀어주었다.

언제나 새것을 지향하는 일군들의 높은 요구성은 기술자들을 분발시켰다. 얼마후 리종덕실장을 비롯한 기술자들은 연구사들의 도움밑에 IP카메라를 리용한 현장원격감시체계에 대한 설계를 완성하여 내놓았다. 보다 발전된 수자식감시체계이면서도 탄광에 이미 있는 콤퓨터들에 기판을 증설하지 않고도 영상신호를 망을 통해 그대로 수신할 수 있는 그야말로 실리있는 안이였다.

책임일군들은 설계가 완성된 즉시 설비들을 마련하는 한편 기술자들과 기능공들의 창조적열의를 적극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되여 1년도 못되는 사이에 갱막장들은 물론 벨트콘베아운반선의 원동소들을 포함하는 탄광의 현장원격감시체계 도입이 빛나게 결속되였다.

정보화를 실현하는 사업은 어려운 기술적문제들과 적지 않은 자금을 동반한다. 이런 문제앞에서 기술자들은 먼저 일군들을 바라보게 된다. 책임일군들이 과학기술이야말로 자기 단위 발전의 생명선이라는 투철한 관점에 서서 끝까지 밀어주면 그것은 기술자들에게 상상밖의 창조적나래를 달아주는것으로 된다.

일생산 및 재정총화공시판을 세울 때였다. 모든 탄부들이 자기들의 실적을 매일 한눈에 직접 볼수 있도록 야외에다 콤퓨터를 리용하여 실시간으로 일생산 및 재정총화정형을 표시해야 할 과업이 정보실성원들에게 맡겨졌다. 다른 단위처럼 걸음전동기를 리용하여 화살표를 올리는 방식으로는 직관성과 친절성을 충분히 보장할수가 없었다.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서로 모대기며 토론을 거듭하던 나날 정보실창문가에는 밤이면 언제나 불빛이 꺼질줄 몰랐다.

수십m 떨어진 공시판설치를 위한 건설공사장에서는 낮에 이어 밤에도 로동자들이 웅웅 기세를 올리고있었다. 그 앞장에는 언제나 초급당비서 한학종동무가 서있었다. 아직 연구방향도 서있지 못한 때이지만 건설공사를 중단없이 밀고나가면서 때로는 후방물자도 안겨주는 당일군의 모습에는 기술자들에 대한 믿음과 함께 우리 힘으로 반드시 할수 있다는 배짱이 어려있었다.

그것은 리종덕실장을 비롯한 정보실성원들에게 열백배의 힘으로 되였고 창조의 큰 나래를 펼치게 하였다. 드디여 20대의 액정텔레비죤화면을 묶는 방법으로 모든 굴진소대 및 채탄중대들과 탄부들의 실적을 표시할 그야말로 기발한 착상이 나왔다. 건설공사가 완공되는것과 동시에 책임일군들이 탄광의 자금을 뚝 떼내여 마련한 설비들이 설치되였고 특색있는 일생산 및 재정총화공시판이 곧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 공시판을 통하여 자기의 하루실적과 자기 소대와 중대의 실적은 물론 일별계획을 수행한 혁신자들의 사진이 실시간으로 현시되는것을 직접 보며 탄부들의 생산의욕과 경쟁심이 열백배로 분출된것은 두말할것 없다.

당의 높은 뜻대로 정보화를 실현하여 생산경영활동을 높은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웠을뿐 아니라 석탄증산의 커다란 예비를 얻어낸 탄광의 경험은 오늘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시사하는바가 크다.

본사기자

12개의 우승기가 전하는 사연

◎ 온천군 송현리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

온천군 송현리에는 12개의 우승기들이 있다. 당의 대중체육방침을 높이 받들고 체육을 생활화하는 과정에 농장이 쟁취한 영예의 우승기들이다. 그 우승기들이 전하는 사연이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대중체육사업을 강화하는것은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체육방침입니다.》

지난 시기 송현리는 군적으로 제일 뒤떨어진 농장으로 평가되였다. 농사에서나 꾸리기에서나 군적으로 진행되는 체육경기에서나 늘 마지막자리를 차지하군 하였다. 그런데도 리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그러한 처지를 어쩔수 없는 일로 범상하게 여기고있었다. 여기에 종지부를 찍은 일군이 있다. 새로 온 리당비서 최명식동무이다.

우리 농장이라고 왜 늘 뒤자리만 차지하겠는가. 체육경기만 놓고보아도 문제는 우리 농장사람들의 머리에 달려있다. 자기 힘에 대한 확신을 안고 떨쳐나서면 우리도 당당히 앞설수 있다. 우리 일군들부터 앞장에서 체육열풍을 일으키자.

어느 한 협의회장에서 울린 리당비서의 호소는 참가자들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렸다.

이때부터 리당일군은 하루일을 끝마친 저녁무렵이면 웃동을 벗어제끼고 배구경기장에 뛰여들군 하였다. 이렇게 되여 리당일군들과 관리위원회일군들사이의 배구경기는 생활화되게 되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리당비서가 왜 그렇게 체육사업에 극성인지 다는 리해하지 못했다. 일부 사람들은 농사군은 농사를 잘 짓기만 하면 그만이지 무슨 체육인가고 하면서 그것을 하나의 부담처럼 여겼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체육을 그 무슨 오락처럼 여기면서 이 사업을 등한시하였다. 하지만 리당일군은 체육을 중요한 정치사업으로 보고 여기에 더 큰 힘을 넣었다.

청년들이 호응해나섰다.

리안의 청년들은 작업의 쉴참과 휴식일때마다 어김없이 체육경기를 조직하여 농장에 체육바람을 일으키는데 앞장섰다.

얼마후부터는 작업반별, 분조별대항전이 시작되였다.

그런 환경속에서 지난 시기 이름도 없던 사람들이 체육인재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농장에서는 그들을 주력으로 축구와 롱구, 배구를 비롯한 체육종목들에서 선수들을 선발하여 군적인 체육경기에 출전시켰다.

이렇게 되여 리당비서가 새로 온 때로부터 3년째 되던 해에 송현리는 군적으로 진행되는 체육경기에서 첫 우승기를 쟁취하게 되였다.

그 우승기가 사람들에게 준 충격은 실로 컸다. 결심하고 달라붙으면 결코 못해낼 일이 없다는 신심이 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의 가슴마다에 깊이 새겨지게 되였다. 그와 함께 집단의 단합과 화목이 이루어지고 농사일도 쭉쭉 풀려나갔다.

리당일군이 노린 목적은 바로 이것이였다.

리당위원회에서는 그 기세를 늦추지 않고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체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대중운동결의목표에 반영하고 근기있게 내밀었다.

리당위원회는 여기서도 옳바른 방법론을 택하였다.

농장적으로 제일 앞선 단위가 아니라 뒤떨어진 단위를 추켜세워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본보기단위로 내세운것이다.

제6작업반의 실례를 들수 있다.

그때까지만 해도 6작업반은 뒤떨어진 단위였다. 새로 임명된 작업반장에게 리당일군은 말하였다.

《조건이 어려울수록 자기 힘을 믿고 일떠서야 합니다. 대중의 정신력을 불러일으키는데서 체육사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려보십시오. 꼭 좋은 결실이 있을것입니다.》

그 말은 작업반장 리창길동무에게 신심을 안겨주었다.

리창길동무는 자기 사업의 첫 걸음을 이렇게 내짚었다.

농사일의 어려운 조건에서도 작업반에 배구장과 롱구장을 비롯한 운동장을 새롭게 꾸리고 대중체육활동을 하루도 번지지 않았다. 그것이 작업반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단합시키고 작업반의 물질적토대를 튼튼히 갖추며 면모를 완전히 일신시키는데서 큰 작용을 하게 되였다.

몇해후 제6작업반은 3대혁명붉은기, 2중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한 단위로 되였으며 군은 물론 시적으로도 소문난 작업반으로 되였다.

대중체육활동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것을 실천속에서 체험한 관리위원장 황성찬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이 사업에 더욱 품을 들이였다.

농장에서는 근로단체조직들의 역할을 높여 명절날과 휴식일을 비롯한 여러 계기때마다 리에 있는 학교운동장에서 농장적인 체육경기를 조직하고 시상도 의의있게 진행하여 대중의 체육열의를 높여주었다.

바쁜 영농전투에 들어가기 전에는 꼭 체육경기를 조직하여 대중의 열의를 최대로 폭발시켰다. 그 나날에 체육은 농장원들에게 있어서 순간도 떨어질수 없는 생활의 한부분으로 되였으며 그것은 그대로 단위의 전투력을 비상히 높여주었다.

언제인가 군적으로 진행된 물길공사장에서 있은 일이다.

그때 농장앞에 맡겨진 공사량은 방대하였다. 두달은 실히 걸려야 할 공사과제를 리안의 청년들은 단 20일만에 해제끼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그 비결이 대중체육활동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년들은 물길바닥에 운동장을 닦아놓고 쉴참이면 배구경기로 사기를 올리면서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려 집단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였던것이다.

이런 실례들을 꼽자면 끝이 없다.

제5, 8, 11작업반들을 비롯하여 리안의 모든 작업반들에서 대중체육활동으로 농업생산을 늘인 사실에 대해서 다 말할수는 없다.

농장은 해마다 군적으로 진행하는 체육경기들에 출전하여 12개의 우승기를 쟁취하였다. 체육경기들에서 우승기를 하나씩 쟁취할 때마다 농장은 비약의 발걸음을 큼직큼직 내짚었다.

리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농장에서는 령도업적단위답게 어버이수령님의 현지지도표식비를 새로 건립하고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실을 비롯한 사상교양거점들을 훌륭히 꾸려놓았다. 뿐만아니라 태양열온실과 버섯생산기지도 번듯하게 지어놓고 먹는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사를 성과적으로 벌렸으며 13개의 장소에 양어장을 건설하고 100여대의 풍력발전기를 설치하여 농장원들이 전기덕을 보게 하였다.

오늘 농장이 군적으로 볼 때 체육사업은 물론 군중문화예술활동과 농장꾸리기, 농사를 비롯한 모든 면에서 단연 앞장서나가고있는 모든 자랑찬 성과들은 12개의 우승기와 직결되여있다.

12개의 우승기와 농장이 걸어온 발자욱.

이것을 놓고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되는가.

매개 단위의 발전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다.

우리는 이곳 리당위원회사업을 통해서 체육을 단순히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단위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치사업으로 틀어쥐면 비약이 일어나게 된다는것을 다시금 확신하게 된다.

본사기자 채인철

논두렁짓기를 써레치기에 앞세운 까닭

천리마구역 강선협동농장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협동농장들에서는 매 영농공정별로 준비를 면밀히 한데 기초하여 시기별영농작업을 제때에 질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천리마구역 강선협동농장의 일군들이 모내기전투를 조직하면서 확고히 앞세우고있는 공정이 있다. 바로 써레치기에 앞서 논두렁짓기를 하고있는것이다. 일군들이 이 사업을 강하게 틀어쥐고나가는데는 사연이 있다.

지난해 모내기철에 포전을 돌아보던 관리위원장 장정수동무는 한가지 사실을 목격하게 되였다. 어느 한 논두렁밑의 모들이 물에 잠겨있는것이였다. 분명 그 부분의 땅이 낮아진것이였다. 이렇게 된 리유를 알아본 결과 써레치기를 한 다음에 흙을 파서 논두렁을 짓다보니 그 부분이 낮아진데 있었다.

관리위원장은 속구구를 해보았다. 논두렁길이가 수백m인 조건에서 결국 7~8평에 심은 모들이 물에 잠기는것으로 된다. 따라서 이 포전에서만도 17~20kg의 낟알을 잃게 된다. 이것은 결코 스쳐보낼수 없는 문제였다. 그는 큰것만 보면서 작은것을 소홀히 한 자기의 그릇된 일본새를 다시금 심각히 돌이켜보지 않을수 없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이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사업을 당과 국가앞에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모든 일을 혁신적으로, 과학적으로 전개해나가야 한다고 가르치시지 않았는가.

교훈이 큰것만큼 결심도 새로왔고 일본새도 달라졌다. 잡도리를 단단히 한 일군들은 이 사업을 올해 모내기전투의 중요한 항목으로 제기하고 큰 힘을 넣었다.

우선 일군들부터 앞장에 섰다. 작업반들을 담당하고 나간 이들은 논두렁짓기가 가지는 중요성을 해설해주면서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갔다. 특히 농장일군인 오제환동무는 분조장들이 사업을 책임적으로 하도록 그들과 함께 일도 같이하면서 화선식정치사업을 참신하게 진행하였다.

일군들의 뒤를 따라 농장원들도 주인다운 자각이 높아져 논두렁짓기를 책임적으로 깐지게 하였다. 그리하여 모든 작업반들에서 논두렁짓기를 써레치기에 한주일이상 확고히 선행하게 되였다. 이렇게 하니 좋은 점이 많았다. 모든 포전들이 수평이 잘 보장되여 모가 물에 잠기거나 뜨는 현상이 없어졌다.

모든 영농지도를 책임지는 립장에서 알뜰하고 깐지게 하는 이곳 일군들의 사업기풍은 얼마나 혁신적인가.

김강철

고리형순환생산체계에 의한 남새생산을 잘하고있다.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에서— 본사기자 리명남 찍음

전민과학기술인재화실현의 리상적인 지름길—원격교육

나날이 비약하는 전민학습체계의 새 모습

이동통신망에 의한 우리 식의 원격교육체계 확립

전민학습의 종합적거점의 하나인 김책공업종합대학 원격교육대학에서 이동통신망에 의한 원격교육체계를 확립하여 누구나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고 마음껏 공부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원격교육에서 하나의 변혁이라고 할수 있는 이동통신망에 의한 원격교육체계가 실현됨으로써 먼 후날의 일로 그려보던 리상적인 학습망이 눈앞의 현실로 펼쳐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교육부문 일군들의 역할과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관심을 높여 새 세기 교육혁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인재강국화실현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정보기술의 발전은 례외없이 교육분야에도 응용되여 이전에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변혁을 가져왔다. 대표적으로 오늘 세계적으로 콤퓨터원격교수체계를 리용하여 원격학습이 진행되고있는것을 들수 있다.

절세위인들의 원대한 구상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원격교육이 전민학습의 위력한 수단으로 등장하여 몇해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에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전민과학기술인재화실현을 힘있게 추동하고있다.

두해전 평양기초식품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 공장 종업원들이 원격강의실에서 김책공업종합대학 과정안을 수료하고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원격교육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김책공업종합대학 원격교육대학의 일군들과 교원, 연구사, 편집원들은 우리의 원격교육을 더 높은 수준에로 끌어올리기 위한 연구사업을 줄기차게 벌리였다.

그리하여 세계적인 발전추세와 우리 나라의 구체적조건에 맞게 이동통신망에 의한 원격교육체계를 우리 식으로 새롭게 확립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동통신망에 의한 원격교육체계는 한마디로 지능형손전화기를 가지고 임의의 장소에서 임의의 시간에 공부할수 있는 체계이다.

손전화기를 리용하여 학생들이 대학에서 진행하는 모든 강의들을 편리한 시간에 받을수 있으며 필요한 학습자료를 손전화기에 복사해놓고 아무때나 리용할수도 있다.

이렇게 이동통신망에 의한 원격교육체계는 현직에서 일하면서 배우는 원격교육대학 학생들이 원격강의실과 떨어져있는 조건에서도 원격교육을 정상적으로 받을수 있게 한다.

이동통신망에 의한 원격교육체계는 망이 아직 구축되지 못하였거나 긴장한 전기사정 등으로 하여 유선에 의한 원격교육이 불리한 지방의 여러 지역, 단위들에서도 학생들이 이동통신망을 통하여 교육을 받을수 있는 우점을 가지고있다.

유선에 의한 원격교육에서와 같이 이동통신망에 의한 원격교육체계에서도 학생들의 학습 전과정을 장악하면서 실력평가도 과학적으로 할수 있게 되여있다. 즉 학생들의 학습이 지난 시기 원격강의실과 같은 고정된 장소에서 진행되는것이 아니라 임의의 장소에서 임의의 시간에 개별적으로 진행되지만 교육관리프로그람이 개발도입됨으로써 매 학생들이 강의받은 정형과 자체로 진행한 학습과정을 장악하면서 학생들의 리해정형도 구체적으로 분석평가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충분히 소화시키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새로운 과제와 참고서를 제시하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 보충강의도 해준다.

이뿐이 아니다. 학생들이 자체로 실력판정도 할수 있고 잘 모르는 문제들에 대하여서는 질문도 할수 있게 되여있다. 이와 함께 학과설계, 학과토론을 비롯하여 모든 형태별교수들을 다 거치게 되여있다.

한마디로 보다 지능화된 교육관리체계는 각지 원격교육대학 학생들의 실력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원격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실력이 주간대학졸업생 못지 않으리라는것이 원격교육대학 교육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원격교육대학에서는 학생별로 교육과정이 개별화되여있어 학생들은 능력에 따라 5년제대학을 2~3년안에 졸업할수도 있고 임의의 2전공, 3전공과목을 선택할수도 있는 우점을 가지고있다.

손전화기만이 아니라 각종 판형콤퓨터를 리용하여 공부할수 있게 됨으로써 원격교육수단의 폭이 넓어지고있다.

지금 원격교육대학 입학생들은 눈에 띄게 높아지는 자신들의 실력을 두고 신심에 넘쳐 학습에 더욱 열정을 기울이고있다. 원격교육을 두고 이들모두가 공부가 힘들지만 보람차고 재미나는 교육, 진짜 실력위주의 대학, 생산현장이라는 실습무대를 적극 활용하는 실리있는 학습마당이라고 하면서 최신과학기술지식의 소유자, 첨단기술의 개척자로 준비해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이들의 가슴마다에서는 누구나 일하면서 마음껏 대학교육을 받을수 있게 더 넓은 배움의 문을 활짝 열어준 우리 당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 우월한 전민학습체계가 정연히 갖추어진 우리의 사회주의교육제도에 대한 감사의 목소리가 뜨겁게 울리고있다.

김책공업종합대학 원격교육대학은 지금 지식경제시대를 떠메고나갈 불타는 열의와 크나큰 포부로 심장을 끓이는 전국의 희망자들을 가상교육이라는 무한한 탐구의 세계로 부르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공로혁

원격교육의 선구자가 된 비결

몇해전 원격교육을 남먼저 실현한 김책공업종합대학 원격교육대학에서는 전망적으로 이동통신망에 의한 원격교육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높은 목표를 세우고있었다.

기간은 3년! 결코 쉬운 목표가 아니였다.

그러나 대학의 교육자들은 보답의 일념안고 탐구의 낮과 밤을 이어가며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동통신망에 의한 원격교육체계를 확립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비결은 무엇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정보통신기술을 리용하는 먼거리교육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되지 않고 필요한 인재를 키워내며 나라의 전반적문화기술수준을 빨리 높일수 있게 하는 우월하고 실리있는 교육형태입니다.》

새로운 원격교육체계를 확립하는 연구사업에서 핵심적이면서도 방대한 과제는 프로그람개발이였다. 한마디로 첨단을 개척하는 사업이였다.

원격교육대학의 일군들은 우선 개발자들의 사고와 관점을 혁신하는것을 중요한 문제로 보았다. 말하자면 모든것을 우리의 현실에 맞게 우리 식으로 사고하는것을 연구사업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이동통신망에 의한 원격교육을 실현하였다고 하는 다른 나라들의 경험은 우리의 현실에 맞지 않았다. 우리의 실정에 맞게 원격교육체계를 확립하자면 새로운 령역들을 개척해야만 하였다.

원격교육대학의 일군들과 교원, 연구사, 편집원들은 기존경험이나 리론이 아니라 현실에 발을 붙이고 새로운 관점과 립장에서 연구사업에 달라붙었다.

여기에서 대학의 일군들이 중시한것이 있다. 착상이다.

독특하고 기발한 착상이 없으면 첨단분야를 개척할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그 착상의 원천도 들끓는 현실이였다.

그리하여 모두가 각지로 달려갔다. 여러 단위들의 실태도 료해하고 원격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의견도 모두 종합하였다. 역시 현실은 창조의 활무대였고 대중은 스승이였다.

이 과정에 착상된것이 분산식과 정집행—집중식교육관리체계이다. 한마디로 학생들의 학습이 임의의 장소, 임의의 시간에 진행되지만 강의받은 정형, 강의리해정형, 과제수행정형을 비롯한 모든 학습과정을 원격교육대학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말한다.

이 착상에 기초하여 설계가 선행되고 해당한 프로그람개발이 시작되였다. 이 과정에 학생별로 학습과정을 장악하면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험을 포함하여 학생들의 실력을 과학적으로 평가할수 있는 프로그람들이 개발되였다. 그리하여 기성관념에서 벗어난 새로운 형식을 갖추고 이동통신망에 의한 원격교육체계를 손색없이 완성할수 있었다.

다음으로 대학에서는 인재관리에 힘을 넣어 응당한 성과를 거둘수 있었다.

지식경제시대에 인재관리는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처음 이 사업을 설계할 때 방대한 과제에 비하여 연구력량이 엄청나게 모자랐다.

학장 김일남동무를 비롯한 대학의 일군들은 자체의 연구력량으로 최대한 능률을 높이는데서 방도를 찾았다. 그러자면 인재관리사업을 잘 짜고들어야 하였다.

그리하여 매 성원들의 실력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매 사람의 능력에 맞게 해당한 과제를 명백히 분담하고 요구성을 높여나갔다. 이와 함께 개발자들의 연구사업진척정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서 방도를 함께 토론해주기도 하고 제기되는 사소한 의견도 놓치지 않고 대책을 세워 모두가 연구사업에 전심전력하게 하였다. 그리고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쳐가도록 하는데도 응당한 관심을 돌렸다.

그리하여 원격교육대학 교원, 연구사, 편집원들 대부분이 정보기술을 전공한 전문가들이 아니였지만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원격교육체계를 확립하는데서도 자기의 실력을 남김없이 발휘할수 있었다.

인재관리사업, 그것은 결국 사람과의 사업, 마음과의 사업이였다.

3년을 1년으로 앞당긴 김책공업종합대학 원격교육대학 일군들과 교육자들의 사업성과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어떤 사상적각오를 가지고 달라붙는가에 따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 당정책관철에서 선구자가 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이 결정된다는것을 이곳 일군들과 교육자들의 실천과정이 잘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늘어나는 희망자, 높아가는 학습열풍

희망과 인기

김책공업종합대학 원격교육대학이 처음으로 문을 연것은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였다.

대학에서는 원래 이 기업소에서의 원격교육을 시험적단계로 정하고 여기에서 얻은 경험을 살려 전국각지에 일반화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여러 공장, 기업소책임일군들이 즉시에 달려와 자기 단위 종업원들도 원격교육을 받게 해줄것을 열렬히 희망하였다. 그리하여 시험적단계부터 13개 단위가 원격교육망에 망라되게 되였다.

이런 일도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공장에 원격교육을 받아들이기 위해 모색하던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의 책임일군은 어느 한 회의에 참가한 기회에 김책공업종합대학 책임일군으로부터 원격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게 되였다.

그는 공장일군들과 토의하고 원격강의실을 최상의 수준에서 꾸리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었다.

그리고 지배인과 초급당비서, 기사장을 비롯한 일군들이 앞장에서 원격교육대학 학생이 되였다.

원격교육은 이렇게 시작부터 광범한 대중의 인기를 모았다.

4년과 4개월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이동통신망에 의한 원격교육체계를 실현한 이후 원격교육대학 희망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있다.

최근 넉달동안에만도 4 000여명의 학생들이 원격교육대학에 입학하였다.

이것은 지난 4년동안에 입학한 학생수와 맞먹는다. 그리하여 현재 대학에서는 8 000여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있는데 결국 대학밖에 또 하나의 대학이 운영되고있는셈이다.

원격교육대학 학장 김일남동무는 지난 4월말에 《로동신문》에 1 280여개의 기관, 기업소, 공장들이 원격교육대학에 망라된 보도가 실렸는데 얼마 안되는 기간에 그 수는 다시 1 370여개로 늘어났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이 수자도 며칠 지나면 또 달라질것이라고 하는것이였다.

원격교육의 우월성, 생활력이 여기에 다 비껴있다.

지금도 각지에서 자기 단위의 입학자명단을 가지고 올라온 사람들과 평양시의 지망자들이 원격교육대학에 등록하기 위하여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끊임없이 찾아오고있다. 앞으로 지망자들은 또 얼마나 늘어날것인가.

경쟁바람과 실력전

원격교육대학의 홈페지에서는 전국의 원격대학 학생들의 교육과정안집행정형과 실력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사진과 함께 소개해주는 학습순위소개판이 운영되고 기관, 기업소별경쟁도표도 정상적으로 소개하여 경쟁심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그와 더불어 경쟁바람이 일면서 학생들의 학습열의가 대단히 높아지고있다.

초기에 한주에 한번씩 진행하던 경쟁총화가 학생들의 제기에 의하여 매일 진행되고있다. 모범적인 학생소개도 초기에 10명정도였지만 지금은 수십명으로 늘어났다.

원격교육을 받는 단위들의 책임일군들 역시 학부형이 된 심정으로 자기 단위의 학생들을 위한 교육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이 경쟁열풍은 오늘의 우승자가 결코 래일에도 실력가가 아니라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군 한다. 조금이라도 헛눈을 팔거나 자만하면 아득히 떨어지고마는 시대의 흐름을 자각하고 누구나 탐구의 열정을 깡그리 쏟아붓고있다.

이들이 승벽심으로 쌓아가는 지식의 탑우에 사회주의문명국의 휘황한 래일이 밝아오고있다.

본사기자

가상교육의 매력과 실리성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사회적으로 과학기술중시기풍을 세우며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구호를 높이 들고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현대과학기술을 열심히 배우도록 하여야 합니다.》

일명 가상교육이라고 불리우는 원격교육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충분한 교육기회를 제공해주고있다.

돈 한푼 내지 않고 공부하는 우리의 사회주의교육제도에서는 누구나 일하면서 원격교육을 통하여 대학을 졸업할수 있으며 시공간의 제한이 없는것으로 하여 장애자들도 얼마든지 고등교육을 받을수 있다.

누구나 자기의 소질과 취미에 따라 학과를 선택할수 있고 유능한 교원의 강의를 받을수 있는것이 첫째가는 매력이라고 할수 있다. 특히 기초지식과 능력이 서로 다른 학생들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형식의 교수를 보장하는 학습체계, 풍부한 학습자원, 합리적인 시험평가방식으로 학생들의 지식기초와 인식능력을 추리하고 이에 기초하여 각이한 수준의 학습내용을 제공하는 원격교육의 새로운 모습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끌어당기면서 누구에게나 할수 있다는 신심을 안겨주고있다.

해당 단위에 필요한 여러 분야의 기술자, 인재들을 현장에서 얼마든지 키워낼수 있는것은 원격교육이 가지는 또 하나의 매력이라고 할수 있다.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의 실례를 놓고보자.

이 공장에서는 많은 로동자들이 김책공업종합대학 원격교육대학에 입학하여 공부하고있다.

그들이 전공하는 학과들은 여러 공학분야들이다. 이곳 일군들은 지금은 공학분야의 기술자들, 인재들이 더 많이 필요한 때라고 말한다.

옳은 말이다. 생산장성은 곧 설비현대화에 달려있다. 이런것으로 하여 공장의 일군들은 로동자들을 여러 분야의 최신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하고 첨단설비들을 다룰수 있는 능력있는 기술자, 기능공들로 전망성있게 키워가고있는것이다.

나라의 화학공업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어느 한 련합기업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 기업소에서는 화학분야의 전문가, 기술자량이 그쯘히 갖추어진 조건에서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원격교육대학에 많은 로동자들을 입학시켜 여러 공학분야를 전공하게 함으로써 기업소의 운영과 기술혁신에서 큰 덕을 보고있다.

농업근로자들도 농촌기술혁명수행의 선구자로 위훈떨칠 크나큰 포부를 안고 기계, 전기공학과 같은 공학분야의 최신과학기술을 배울것을 열렬히 희망하고있다.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뿐이 아니다. 이미 대학을 나온 과학자, 기술자, 교육자들도 원격교육마당에 적극 뛰여들고있다.

오늘의 지식경제시대에는 고등교육을 받은 지식인들도 새 지식과 부단히 접촉하지 않으면 순간에 락오자가 된다. 재교육이 필수적인것으로 되고있는 오늘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일생교육, 련속교육을 담보해주는것이 바로 원격교육이다. 그리하여 여러 원격교육중심들에서는 원격교육을 통한 재교육에도 큰 힘을 넣고있다.

원격교육은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키는데서도 아주 실리있는 학습체계이다. 현장만큼 실리있는 실습기지는 없다. 현장에서 일하는 로동자들이 원격교육을 통하여 배운 지식을 현실에서 공고히 하고 산지식으로 써먹을수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꿩먹고 알먹고 둥지털어 불때는 격이 아니겠는가.

이렇듯 원격교육은 전민과학기술인재화실현의 리상적인 지름길이며 그 생활력으로 하여 광범한 근로자들의 깊은 관심속에 그 령역이 부단히 넓어지고있는 우월한 전민학습체계이다.

본사기자

먼거리교육의 어제와 오늘

원격교육 즉 먼거리교육은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발전하여왔는데 현재 제4세대에 들어섰다고 볼수 있다.

제1세대는 주로 인쇄물을 소포로 보내는것을 전파수단으로 하였는데 통신대학에서 응용되였다. 제2세대는 20세기 70년대초부터 소리방송, 텔레비죤방송 등을 전파수단으로 하였으며 사회교육의 형태를 띠였다. 제3세대는 텔레비죤방송과 록화를 위주로 하면서 점차 위성텔레비죤 등으로 지향되였으며 보다 정연한 체계를 갖추었다. 제4세대는 현재 망을 통한 학습, 원격강의(교수)형식으로서 콤퓨터회의체계, 쌍방향영상체계, 망다매체자료기지 등 여러 기술을 받아들이고있다.

망교육형태에는 학습자가 임의의 시간에 망상에서 학습자원을 호출하며 학습하는 형태와 강의하는 사람과 직접 질의응답하면서 학습하는 실시간형태가 있다.

먼거리교육에서는 텔레비죤방송, 소리방송, 인쇄물, CD, 망 등과 같이 현대적인것과 전통적인 전파수단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그 효과를 높이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여러가지 수단들에 의한 먼거리교육형태들이 실현되고있다.

지금 먼거리교육과 관련하여 다양하고 합리적인 과정안을 만들고 먼거리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위한 자격시험제도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있다.

본사기자

새로운 과학기술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정열적으로 학습하는 릉라곱브이어관 종업원들 본사기자 찍음

2015년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녀성대행진에 참가할 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평양 5월 20일발 조선중앙통신】 2015년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녀성대행진에 참가할 대표단이 20일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손님들은 이 력사의 집에 깃들어있는 불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대표단 단원 매어리드 매과이어는 **김일성**주석께서 탄생하신 만경대고향집을 방문하고 그이의 혁명적생애에 대하여 알게 되였으며 커다란 감동을 받았다고 강조하였다.

단원 재미동포 안은희는 여러번에 걸쳐 만경대를 방문하였다고 하면서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수수한 초가집에서 탄생하시여 한평생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다.

그이께서 겨레와 인류를 위해 쌓으신 수많은 업적중의 특기할 업적은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을 해방하신것이다.

대표단은 이날 경상유치원, 옥류아동병원,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 등을 참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담화

지금 미국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전면적인 파산으로 궁지에 몰린 비참한 처지에서 헤여나보려고 남을 물어뜯는데 광분하고있다.

남조선을 행각한 미국무장관 케리는 지난 18일 우리가 핵무기와 탄도미싸일을 계속 추구하면서 위협을 증대시키고있다느니, 우리에 대한 국제적압력을 가증시켜 행동을 변화시키는것이 필요하다느니, 싸이버공격을 자행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공동대응해야 한다느니 하며 우리를 악랄하게 헐뜯고 갖은 험담을 다 늘어놓았다.

지어 케리는 우리의 최고수뇌부까지 걸고들며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의 영상에 먹칠을 하고 다 거덜이 난 우리에 대한 《인권》압력소동을 정당화해보려고 시도하였다.

케리의 망발은 조미관계를 오늘과 같은 최악의 상태에로 몰아넣은 책임에서 어떻게 하나 벗어나보려는 미국의 단말마적인 발악으로서 사실상 오바마행정부의 대조선정책의 총파산을 자인하는 패배자의 넉두리에 불과하다.

미국은 저들의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압살책동으로 하여 그 무슨 대화나 핵문제자체에 대하여 운운할 자격을 이미 상실하였다.

우리는 지난 기간 조선반도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기회를 여러차례 마련해주었으나 미국은 고질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끝내 버리지 못하고 그 모든 기회를 다 날려보내고말았다.

가장 최근인 지난 1월에만 하여도 미국이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도발적인 합동군사연습을 림시중지하면 우리도 핵시험을 림시중지할수 있다는 용의를 보여주었으나 미국은 이를 거부함으로써 핵문제해결의 마지막기회까지 놓쳐버렸다.

현실은 미국이 핵문제의 실제적인 해결에 전혀 관심이 없고 그렇게 할 의지도 없으며 오직 조선반도에서 긴장을 끊임없이 격화시키고 그를 구실로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군사적지배권을 회복하려는데만 몰두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국이 악습적으로, 병적으로 굳어진 우리에 대한 거부감과 적대시정책을 버리기 전에는 조미관계에서 어떠한 진전도 있을수 없다.

대결과 긴장격화의 악순환이 지속되고있는 지금의 흐름을 달라지게 하려면 미국이 우리에 대한 관점부터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

미국의 외교를 책임졌다는 케리가 조선반도비핵화를 끝끝내 하늘로 날려보낸 저들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보려고 아무리 악담과 험담으로 말재간을 피우다 못해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내정간섭적인 망발까지 늘어놓아도 진실은 절대로 가리울수 없다.

오바마행정부는 조선반도비핵화를 철저히 말아먹고 조선반도정세를 계단식으로 격화시킨 장본인이라는 《유산》이나 남기고 무대에서 사라지게 될것이다.

미국의 현 행정부가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나기 전에 우리를 더 압박할 생각이라면 우리도 미행정부를 압박할 능력과 수단이 있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미국이 우리를 자극할수록 우리도 미국을 더 아프게 자극할수 있다는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원쑤가 칼을 빼들면 장검으로 내리치고 총을 내대면 대포로 풍지박산내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기질이다.

주체104(2015)년 5월 20일
평 양

그는 오늘도 병사들속에 산다

재령군 읍 280인민반 김춘영동무

(그 모든것이 이제는 추억으로 남아야 하는가.)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퇴근하여 집에 들어서던 남편 김성일동무는 인기척도 느끼지 못한채 앉아있는 안해의 모습을 보게 되였다. 그의 앞에는 초소에서 병사들과 함께 찍은 여러장의 사진이 놓여있었다.

《무슨 생각을 그리 하오?》

그제서야 인기척을 느끼고 눈길을 드는 안해의 눈가에는 맑은것이 고여있었다. 초소의 병사들을 잊지 못해하는 안해의 진정에 넘친 말을 들으며 남편이 받은 충격은 컸다.

《그러니 영원히 병사들의 어머니로 살고싶단 말이지. 난 전적으로 찬성이요.》

남편의 그 말이 김춘영동무의 가슴속에 새 힘을 안겨주었다.

이렇게 시작한 원군길이였다. 휴식일은 물론 여유시간이 생기면 한가지 원호물자라도 더 마련하려고 애썼고 색다른 음식이 하나 생겨도 병사들의 얼굴부터 눈앞에 떠올리였다.

이런 진정을 안고 김춘영동무는 아빠트에서 단층집으로 이사를 간 후 주변에 집짐승우리도 큼직하게 지었다. 많은 돼지를 기르느라 손이 마를새 없었고 지쳐 쓰러질 때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우리 어머니라고 부르며 따르던 병사들을 생각하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는 이렇게 키운 집짐승들을 해마다 건군절을 비롯한 주요계기때마다 병사들에게 보내주었다.

오늘도 김춘영동무는 언제나 마음을 초소에 얹고 변함없이 병사들의 어머니로 불리우며 아름다운 생의 자욱을 수놓아가고있다.

특파기자 리승철

서로 돕고 위하는 고상한 미풍이 온 나라 대가정의 가풍으로 되게 하자

참된 인민의 충복, 복무자의 진정

증산군인민보안서 일군들과 인민보안원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하여 혁명적동지애를 높이 발양하며 온 사회를 령도자와 사상과 뜻과 정을 같이하는 하나의 대가정으로 만들어야 한다.》

지난해 12월 어느날 증산군인민병원으로 중태에 빠진 환자들이 실려왔다. 황해남도물길공사장으로 가던 희천시인민들이였다.

이 사실을 보고받은 현창진, 김명국동무를 비롯한 증산군인민보안서 일군들은 즉시 군인민병원으로 달려갔다.

단지 직업적의무감때문만이 아니였다. 그들은 뜻하지 않게 심한 부상을 당한 인민들의 건강을 회복시키는것을 의료일군들의 일로만 여기지 않았다.

그날 열린 긴급협의회에서 병원에서 보고들은 사실들을 전하고는 김명국동무는 어버이장군님께서 그처럼 사랑하신 자강도인민들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사업을 우리 인민보안원들이 적극 도와주자고 이야기하였다.

긴급협의회를 마치는 그 길로 군인민보안서 일군들은 여러가지 보약재들과 영양식료품들을 가지고 군인민병원 의료일군들을 찾아가 넘겨주었다.

일군들과 함께 병원을 찾았던 인민보안원 최은하동무와 조선인민내무군 대원 리은희동무는 자진하여 최중증환자들의 간호를 맡아나섰다.

병원의료일군들이 환자치료는 념려하지 말라고 만류하였으나 최은하, 리은희동무들은 최중증환자들의 곁을 잠시도 떠나지 않았다. 매일 세수를 시켜주고 제대로 운신하지 못하는 환자들의 몸에 욕창이 생길세라, 자그마한 불편이라도 느낄세라 그들이 기울인 지성은 눈물겹도록 지극한것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에 접한 뜻깊은 올해 1월 1일 군인민보안서 일군들은 남먼저 군인민병원을 찾았다. 집을 멀리 떠나 침상에서 새해를 맞는 환자들을 위로하면서 어서 빨리 건강을 회복하고 강성국가건설에서 한몫 맡아하자고 고무격려해준 일군들이 떠나가기 바쁘게 송영환, 장영의동무를 비롯한 많은 인민보안원들이 약속이나 한것처럼 안해와 가족들과 함께 병원을 찾아왔다.

한주일사이에 몇번이나 찾고 찾아오던 낯익은 인민보안서 일군들과 인민보안원들을 새해의 첫날에 또다시 병원침상에서 맞은 자강도의 차명일동무와 고옥실녀성의 눈시울은 뜨겁게 젖어있었다.

인민의 안녕과 생명재산을 지켜 할 일이 많은 속에서도 친혈육, 친형제를 위하듯이 승벽내기로 찾아와 병문안을 하고 치료를 더 잘하도록 힘을 주는 군인민보안서 일군들과 인민보안원들, 갈증을 느낄세라 꿀물을 먹여주고 끼니때가 되면 따끈한 닭알죽 혹은 닭고기온반을 안고와 어린애처럼 도리질하는 환자들에게 밥그릇밑에 인삼, 록용이 있으니 한술만 더 들자고 정히 떠서 입에 넣어주군 하던 살뜰한 처녀인민보안원들, 그들이 쏟아붓는 진정과 사랑은 피를 나눈 친혈육의 정과 사랑그대로였다.

정말 고맙습니다, 꼭 친혈육들같습니다라고 속마음을 터놓는 그들의 손목을 다정히 잡으며 최은하동무는 말했다.

《그래서 인민보안원이 아닙니가. 인민들을 위해서 성심성의를 다하는것은 우리 인민보안원들의 본분이고 의무입니다.》

이것은 최은하동무만이 아닌 증산군 인민보안원들모두의 좌우명이기도 했다.

인민보안원들은 그 이름에 《인민》이라는 글자를 새겨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인민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몸에 배고 뼈에 굳어진 관습으로 되여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을 가슴에 새기고 인민들의 얼굴에 자그마한 그늘이라도 질세라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는 증산군의 인민보안원들이였다.

우리 원수님께서 제일로 사랑하시고 아끼시며 내세워주시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보안원된 자각을 안고 그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을 길이 받들어모시는 사업에 한생을 바쳐온 충직한 전쟁로병들을 혁명선배로 존대하며 뜨거운 진정을 다하였다.

장마철이면 하천이 불어나 먼길을 에돌아다니는 어린 학생들과 주민들을 위하여 함종지구와 읍지구들에 그 어떤 큰물에도 끄떡하지 않는 다리들을 놓아주었고 심한 가물에도 물걱정을 모르게 여러개의 우물을 파주어 주민들의 감동과 찬사를 자아내기도 하였다.

해마다 질좋은 거름을 장만하여 영광의 자욱이 어린 농장포전에 듬뿍듬뿍 실어내고 바쁜 농사철이면 뜨락또르운전수들과 모판관리공, 논물관리공을 비롯한 농장원들을 위해 여러모로 왼심을 쓰며 물심량면으로 위해주었다. 그리고 누가 알아주건말건 찬바람, 궂은비를 기꺼이 맞으며 은파군과 희천시, 맹산군 등 각지로 찾아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민들이 품고있던 남모르는 마음속고충도 풀어주어 그들이 우리 제도의 고마움을 실지체험으로 가슴깊이 새기게 하였다.

자나깨나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뜻을 충정을 다해 받들어 인민을 위한 헌신적복무로 날과 달을 이어온 증산군의 인민보안원들이기에 자강도인민들을 위하여 그처럼 뜨거운 정과 사랑을 다 바쳐왔던것이다.

친혈육, 친형제처럼 위해주고 보살펴주는 증산군 의료일군들과 인민보안원들, 인민들의 지성에 떠받들려 자강도인민들은 짧은 기간에 건강을 회복하고 완쾌된 몸으로 정든 집으로, 혁명초소로 돌아갔다.

증산땅을 떠나갔어도 자강도인민들은 고마운 증산군의 인민보안원들을 두고두고 잊지 못해하며 이렇게 외우고있다.

증산군의 인민보안원들이야말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품속에서 온 나라가 하나의 대가정, 모두가 한식솔, 친형제이라는 그 말의 고귀한 뜻을 가슴뜨겁게 절감하게 하여준 고마운 인민의 충복, 참된 복무자들이라고.

본사기자 김치곤

대가정의 륜리, 미덕의 향기

세쌍둥이가정에 찾아온 친혈육들

지난 4월초에 있은 일이다. 서성구역 상흥동 1인민반에 사는 박경애동무는 방안에서 들려오는 귀에 익은 목소리에 문가에서 문득 멈추어섰다.

《신발이 좀 큰것 같구나. 됐다. 어서 벗어라. …수고스러운대로 애들 발에 맞는 신발을 골라 바꾸어주어야겠소.》

구역당일군의 사려깊은 목소리에 박경애동무의 가슴은 불시에 찌르르해났다.

왜 그렇지 않으랴.

명절날과 아이들의 생일날은 물론 일년 사시절 추우면 추울세라, 더우면 더울세라 세쌍둥이의 건강과 생활을 세심히 돌보아주는 구역당일군들의 진정에 목메인적은 진정 그 얼마였던가.

박경애녀성의 온 가족은 여직껏 자기 집을 그토록 수없이 다녀간 그 많은 일군들의 이름을 하나도 알지 못하고있다.

하지만 세쌍둥이가정의 누구나가 그 모든 낯익은 모습들을 하나로 총칭하는 마음속의 이름이 있으니 그것은 어머니, 어머니당이라는 더없이 성스런 부름인것이다.

장정철

친부모처럼 위해줍니다

부모없는 원옹이를 데려온데 이어 세해전 또다시 뜻하지 않게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맡아안았을 때부터 저의 집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있습니다.

올해 1월 1일에도 신의주시검찰소 소장 홍우군동지가 안해와 함께 온데 이어 상업부문에서 일하는 리옥실동무와 도육아원 원장 김성옥선생님이 찾아왔습니다. 또 시인민위원회 일군들이 들어섰고 그다음에는 우리 진향이, 달향이, 래향이를 담임한 신의주시 채하소학교 김승희선생님과 교장선생님이 찾아온데 이어 도인민보안국 리윤일동지가 가족들과 같이 왔으며 또 정승열동지를 비롯한 인민군대 정치일군들이 찾아오고…

그들만이 아닙니다. 시당위원회 일군들과 채하동사무소 일군들, 도미술창작사 리경철동무와 신의주철도분국 정명옥동무, 남상지구종합진료소 의료일군들과 남송동 김명희동무를 비롯한 시안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을 진심으로 위해주고있습니다.

신의주시 채하동 방미향

퇴근길에 비낀 소행

지난해 11월 어느날 평양시제3인민병원 정문을 나서는 한 사람이 있었다. 그가 바로 만경대구역 금성3동에서 사는 선우문삼동무였다.

한달전 퇴근길에 칠골3동의 어느 한 궤도전차정류소에서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졌던 선우문삼동무는 한 청년대학생의 도움으로 몇분후에는 병원으로 들어서게 되였다. 그 청년대학생을 통해 가족들도 소식을 전달받게 되였다. 그를 업고 온몸이 땀투성이가 되여 달려온 청년대학생이 환자의 아들이 아니라는것을 의사들도 가족들이 도착한 다음에야 알수 있었다. 몽롱해지는 의식속에 그가 눈에 새긴것은 김책공업종합대학 휘장뿐이였다. 입원기간 가족들에게 환자의 병상태를 묻의하여 여러번 전화를 걸어오면서도 청년대학생은 끝내 자기 이름 석자를 알리지 않았다.

선우문삼동무와 가족들이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여러 일군들과 교원들의 도움을 받아 그 청년대학생의 이름을 알게 된것은 그로부터 한달이 퍽 지나서였다. 김책공업종합대학 기계과학기술대학 학생 최동훈동무였다. 그때 그는 말하였다.

《아버님, 그 장소에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었다고 해도 응당 그랬을것입니다.》

신현규

애어린 꽃망울을 누가 지키는가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림상제2의학부 소아외과학강좌에서

아직은 10대 혹은 그 이전인 아이들을 흔히 꽃망울에 비긴다.

그 애어린 꽃망울들이 아무 탈없이 활짝 피여나도록 누가 지키고 돌보는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을 떠메고나갈 앞날의 주인공들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함흥시 흥덕구역에 살고있는 리은희녀성은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무럭무럭 잘 자라는 두 아들을 두고 그저 기쁜 마음에만 젖어있었다. 그러던 지난 2월 평양의 친척집에 9살 난 막내 광민이와 함께 왔던 그는 뜻밖의 일을 당하게 되였다. 광민이가 급병으로 락랑구역인민병원에서 1차수술을 받고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병원으로 실려가게 된것이다.

과장 리광천, 교원 라혁동무를 비롯한 강력한 력량이 수술에 진입하였다. 이 수술로써 병이 심해지는것을 일단 멈춰세우게 되였다. 그러나 광민이는 아직 위험계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었다.

또다시 생사기로를 헤매이는 아들앞에서 리은희녀성은 눈물을 쏟았다.

(광민이 아버지,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이때였다.

《광민이 어머니, 힘을 내십시오. 광민이는 꼭 다시 뛰여놀게 될겁니다.》

교원 라혁동무였다.

소생전투는 계속되였다. 귀한 약물이 환자의 몸으로 흘러들고 의사, 간호원들의 정성은 낮에 밤을 이어 뜨겁게 불탔다.

사실 광민이는 태여날 때부터 내장의 한 장기가 기형이였다. 그것은 그의 어머니도 모르고있었다. 이번에 광민이가 급병에 걸린것도 그 선천적인 병으로 인한것이였다. 치료과정에 이것을 밝혀낸 의료일군들은 광민이의 상태를 호전시키는것과 함께 그 선천적인 병까지 완치시키기 위한 높은 목표를 내세웠다.

(광민이의 생명과 그 아름다운 미래가 오늘 우리가 바치는 한초한초에 달려있다.)

치료의 나날 의료일군들의 마음속에 끓어번진것은 바로 이 생각이였다.

광민이 하나뿐이 아니다. 그들은 이런 고결한 정신으로 심장에 이상한 종물이 생긴 2살밖에 안되는 어린 환자를 기어이 살려냈으며 수많은 아이들이 밝은 웃음을 머금고 병원문을 나서게 하였다.

광민이가 기적적으로 소생되고 병을 깨끗이 털어버린 후에야 리은희녀성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였다.

《어머니도 모르는 자식의 병을 찾아 고쳐주다니… 세상에 이렇게 고마운 일도 있습니까?!》

리은희녀성은 또다시 눈물을 쏟았다. 그의 뇌리에 자식들이 태여난 순간부터 의무적으로 받아안은 예방접종을 비롯한 수많은 의료상혜택들이 떠올랐다. 우리의 아이들이 아무 탈없이 튼튼히 자라고 병에 걸려도 다시 희망찬 삶을 되찾는것은 바로 이런 훌륭한 사회주의보건제도와 참된 의료일군들이 있기때문이 아닌가. 정녕 그렇다. 우리 당과 국가의 은혜로운 손길이 언제 어디서나 나라의 꽃봉오리, 우리의 귀중한 꽃망울들을 굳건히 지키며 따뜻이 돌보고있다.

본사기자 허명숙

따뜻한 보금자리에 펼쳐진 인정의 세계

락랑구역 전진동 65인민반 영예군인 최정길동무의 가정에서

집은 사람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삶의 보금자리이다.

창밖에 사나운 눈비바람이 몰아쳐도 언제나 따스한 온기가 흐르는 곳, 방안에서는 텔레비죤을 보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도간도간 울리고 부엌에서는 밥짓는 녀인들의 칼도마소리가 가락맞게 들려오는 곳,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고마운 동지들과 정다운 이웃들이 때없이 문을 두드리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사는 집—소중한 생활의 터전인것이다.

오늘날 사회주의대가정의 집집마다에 넘쳐나는 인간의 정과 생활의 향기는 얼마나 아름다운것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사회에서는 전체 인민이 혁명적의리와 동지애에 기초하여 하나로 굳게 뭉쳐있으며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원칙에 따라 서로 돕고 이끌면서 함께 투쟁해나가고있습니다.》

몇달전 혁명사적지건설지도국아래 영예군인수지건재공장에서 일하던 최정길동무의 집으로 평양시인민위원회의 한 일군이 찾아왔다.

그 일군은 락랑구역 전진동에 새로 짓고있는 살림집을 최정길동무에게 배정하기로 했으니 따뜻한 봄이 오면 새집들이를 하게 될것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다. 최정길동무와 그의 안해 박경희녀성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새로 짓는 그 집에 모래 한줌, 철근 한토막 보태준적 없는 자신들에게 무상으로 안겨진 집, 그것은 정녕 조국보위의 길에 청춘도 육체도 서슴없이 바친 영예군인들을 금싸래기처럼 귀중히 여기며 따뜻이 보살펴주는 우리 당의 뜨거운 사랑이였다.

그들부부가 한량없는 기쁨에 겨워 울고웃을 때 이 소식을 듣고 자기의 일처럼 기뻐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손무권동무를 비롯한 혁명사적지건설지도국의 일군들이였다.

이미 여러번이나 최정길동무가 살던 집으로 찾아와 자식들도 커가는데 집이 좁아 불편할것이라고 늘 걱정해주던 손무권동무는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최동무네 집때문에 생각이 많았는데 나라에서 새 집을 마련해주었구만.》

얼마후 혁명사적지건설지도국에서는 최정길동무의 새 집을 더 잘 꾸려주기 위한 문제가 토의되였다.

손무권동무의 뒤를 따라 혁명사적지건설지도국 함경남도려단 려단장 정용기, 자강도려단 정치부 부부장 허명일동무들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영예군인의 집을 꾸리는 사업에 앞장섰다.

김승환, 리명철동무들을 비롯한 지도국안의 수많은 사람들이 새 집을 더 잘 꾸리는데 필요한 물자들을 마련해가지고 찾아왔으며 라학철, 김평남, 려충성동무들을 비롯한 평양고려호텔의 종업원들도 달려왔다.

6년세월 최정길동무의 가정을 위하여 진심을 바쳐온 선교공업대학 교원 조학수동무며 영예군인동지들이야말로 우리가 따라배워야 할 구대원이라면서 전우의 정을 맺은 조선인민군 군관 황철영동무의 진정은 또 얼마나 뜨거웠던가.

어느날 집꾸리기에 필요한 고급타일을 싣고왔던 손무권동무는 전실입구에 설치한 미닫이문을 한참이나 살펴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아무리 봐도 문색갈이 좀 어둡구만. 이왕이면 더 보기 좋은걸로 교체해주는게 어떻소?》

그날 저녁 새로 꾸리는 최정길동무의 집으로 여러명의 종업원들이 찾아왔다.

《미닫이문을 가져왔습니다. 제꺽 설치합시다.》

최정길동무와 박경희동무는 깜짝 놀랐다.

《아니 어느새 벌써?!》

그들을 더욱 놀라게 한것은 그 미닫이문이 다름아닌 손무권동무의 집에 설치했던것이라는것을 알았을 때였다.

커다란 충격속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겨울추위가 채 풀리지 않은 그때 한 영예군인을 위해 자기 집 문짝까지 통채로 떼여보내준 손무권동무에 대한 고마움이 가슴가득 차올랐던것이다.

그날 밤 스르륵— 가벼운 소리를 내며 여닫기는 미닫이문을 쓰다듬는 최정길동무의 마음속에 손무권동무만이 아닌 자신을 위하여 진정을 바쳐온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못 견디게 그리워졌다. 미처 이름도 기억하기 힘들정도로 많은 그들중에 피를 나눈 혈육이라도 있었던가.

앞을 보지 못하는 최정길동무에게 있어서 얼굴조차 익힐수 없는 그 사람들이 무엇때문에 그처럼 뜨거운 지성을 바쳐왔던가.

그것은 바로 정이였다. 조국을 위해 청춘을 바친 인간에 대한 존경과 사랑, 기쁨과 아픔도 함께 나누며 남을 위하여 자신을 바치는데서 삶의 보람을 느끼는 집단주의적도덕의리심이 체질화된 사람들만이 지닐수 있는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인간의 정이였다.

아름다운 그 정이야말로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우리 인민에게 물려주신 값비싼 재부이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온 나라 인민의 심장마다에 이어주신 혈연의 피줄이 아니겠는가.

따뜻한 봄계절에 최정길동무의 가정은 고마운 사람들의 축복속에 새집들이를 하였다.

그날은 사회주의의 큰 지붕아래 처마를 잇고 사는 우리 인민 모두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더욱 넓어진 날이기도 하였다.

본사기자 승철진

숭고한 인도적문제를 불순한 정치적목적에 악용하는자들은 천벌을 면할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담화

최근 괴뢰패당이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걸고드는 역겨운 추태를 부리고있다.

지난 19일 박근혜는 그 무슨 《축사》라는데서 《고령의 리산가족고통》이니, 《정부차원에서의 노력》이니 뭐니 하면서 우리에게 《리산가족상봉재개를 촉구한다.》고 희떠운 수작질을 하였다.

박근혜는 이에 앞서 《이북도민》대표단 떨거지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도 《리산가족》들의 아픔이 큰데 《북이 대화제의마저 거부하고있다.》느니 뭐니 하며 마치 우리때문에 상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있는듯이 허튼 나발을 불어댔다.

괴뢰패당은 《일천만리산가족위원회》를 비롯한 인간쓰레기단체들과 보수언론들을 내몰아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이 실현되지 못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듯이 떠들어대며 내외여론을 심히 오도하고있다.

또한 상봉문제의 실질적개선을 위해 그 무엇을 할것처럼 입방아질만 하고 북남사이의 모든 접촉과 래왕의 길을 가로막으면서도 그 누구의 《책임있는 조치》를 운운하며 대결분위기를 더욱 악랄하게 고취하고있다.

이것은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파탄시킨자들의 파렴치한 궤변이며 우리 공화국에 대한 용납 못할 정치적도발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우리는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주려는 일관한 립장으로부터 남조선에 보수《정권》이 들어앉아 반공화국대결소동을 그 어느때보다 악랄하게 벌리는 속에서도 분렬의 고통을 안고사는 그들의 상봉을 실현하기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올해에도 우리는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이룩하고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획기적인 제안과 중대조치들을 련이어 내놓고 남조선당국이 이에 호응해나올데 대해 한두번만 천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괴뢰패당은 우리의 선의와 아량, 성의있는 노력에 반공화국대결과 전쟁책동으로 도전해나섬으로써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상태에 몰아넣고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협력을 실현할수 있는 조건과 가능성을 모조리 박살냈다.

총포성이 울리고 화약내 풍기는 속에서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상봉행사를 치를수 없다는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한 사실이다.

남조선호전광들이 내외의 강력한 규탄배격을 받고있는 북침핵전쟁연습을 매일과 같이 벌리면서 그 무슨 《리산가족의 아픔》이니, 《고통》이니 하는것이야말로 위선의 극치이며 철면피한 여론기만이다.

괴뢰패당이 조작해낸 제도적, 물리적장벽에 의해 6.15공동선언발표이후 활발하게 진행되여오던 모든 협력사업이 하루아침에 가로막히고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비롯한 가장 절박한 인도주의적사업까지 중단된 사실에 대해서는 내외가 다 공인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뢰패당이 마치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이 실현되지 못하고있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듯이 떠벌이는것이야말로 도적이 매를 드는 식의 날강도적궤변이 아닐수 없다.

박근혜패당이 이같은 요설로 여론을 어지럽혀보려고 발광하는것은 겉으로나마 《인도주의》냄새라도 피워 북남관계를 파국에로 몰아넣은 책임을 모면하며 내외여론을 오도하여 막다른 《정권》위기를 수습해보려는데 그 불순한 기도가 있다.

그처럼 검은 속심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교활한 술책으로 민심을 기만하고 세상을 속이려는것은 어리석은 망상이다.

동족들이 만나는것 그 자체를 범죄시하면서 역겹게도 그 무슨 《천륜》이니, 《아픔》이니 하는 궤변을 늘어놓는것은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아픈 가슴에 두번 다시 칼질을 하는 반인륜적인 악행이다.

괴뢰패당의 허황하고 위선적인 말장난은 온 민족의 치솟는 격분만을 자아내고있다.

《인도주의》라는 말을 념불처럼 외우기만 할것이 아니라 동족끼리 오갈수 있는 길부터 터놓는것이 박근혜패당이 해야 할 일이다.

괴뢰패당은 그 어떤 요설로써도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파탄시킨 범죄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숭고한 인도적문제까지 불순한 정치적목적에 악용하는자들은 천벌을 면할수 없다.

주체104(2015)년 5월 20일
평양

그가 선택한 길

운산군산림경영소로 자원진출한 내각사무국 아래단위 로동자 안경석동무

태양의 따사로운 빛발아래 미덕의 향기가 넘쳐나는 이 땅에 또 하나의 아름다운 소행이 전해져 만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전당, 전군, 전민이 떨쳐나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릴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내각사무국 아래단위 로동자로 일하던 안경석동무가 나서자란 정든 평양을 멀리 떠나 며칠전 운산군산림경영소로 자원진출하였다.

그의 이러한 소행은 어디 가나 불같은 충정과 애국으로 끓어번지는 오늘의 벅찬 시대가 낳은 또 하나의 미거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에게는 말로 하는 애국이 아니라 실천으로 하는 애국이 필요합니다.》

안경석동무는 제대군인이다.

최전연에서 흘러간 군사복무의 나날 그의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된것은 나서자란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혁명동지의 귀중함이였다.

제대후 그는 목숨보다 귀중한 조국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결심을 안고 사회에 진출하였다.

늘 집단과 동지들을 위해 헌신하며 맡겨진 일을 책임적으로 수행해나가던 그는 어느날 운산군에 이동작업을 나가게 되였다.

그때 군안의 벌거숭이산들을 보면서 그는 생각이 많았다.

바로 저 산발들에도 조국의 한치땅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쳐싸운 혁명선렬들의 뜨거운 피와 애국의 넋이 깃들어있는것이 아닌가.

그런 산들이 불품없이 벗겨졌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하여 작업의 여가시간마다 그는 품들여 구해온 어린 나무모들을 산에 정성껏 심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지난해 11월 그는 중앙양묘장을 현지지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활동보도소식에 접하게 되였다.

벌거벗은 산림을 그대로 두고 이제 더는 물러설 길이 없다고 하시면서 전후복구건설시기 온 나라가 떨쳐나 재더미를 털고 일떠선것처럼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되여 산림복구전투를 벌리자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의 호소를 접하는 순간 그는 심장의 피가 끓어번짐을 금할수 없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룰수가 없었다.

문득 어린시절 할아버지의 애국렬사증을 보여주며 사람의 참된 삶의 가치와 보람은 조국과 인민을 위한 헌신에 있다고 말해주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당의 전투적호소를 받아안은 나의 심장은 과연 무엇으로 고동쳐야 하는가.)

그로부터 몇달후 안경석동무는 운산군산림경영소로 자원진출할 결심을 만경대구역에서 함께 사는 맏누이에게 털어놓았다.

《경석아, 일시적인 흥분으로 그런 소리를 해서는 안된다. 그러다 후회하지 않겠니?》

《저도 나서자란 평양을 떠나기를 주저했댔어요. 그러나 오래전에 돌아가신 부모님들도 대신할수 없었던 뜨거운 사랑을 가슴가득 안겨주며 절 키워 내세운 당의 호소에 제가 어떻게 가만히 앉아있을수 있겠어요. 제 조금이나마 인간의 도리를 다하고싶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굳힌 안경석동무는 지난 3월 당조직에 자기의 진속을 터놓았으며 적극적인 지지를 받게 되였다.

며칠전 안경석동무는 내각사무국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열렬한 환송을 받으며 새로운 혁명초소로 떠나갔다.

당의 호소에 심장으로 화답해나선 안경석동무를 대하며 사람들 누구나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갈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새로 선택한 인생의 길에 기쁜 일도 있고 어려움도 난관도 없지 않으리라. 그렇지만 우리는 안경석동무가 변함없이 꿋꿋이 걸어갈 값높은 인생길을 본다.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안경석동무가 선택한 길, 그것은 결코 나서자란 정든 평양을 멀리 떠나가는 길이 아니였다.

그 길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값높은 삶의 길, 참다운 충정과 의리의 길이였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리건일

독자의 편지

《우리의 새 집이 정말 좋습니다》

우리 전쟁로병들을 혁명선배로, 나라의 귀중한 보배로 아끼고 내세워주는 어머니당의 뜨거운 사랑과 배려속에 얼마전 저는 덩실한 새 집을 받아안게 되였습니다.

리당위원회일군들과 많은 사람들이 조국을 위하여 응당 할 일을 한 저를 전쟁로병이라고 존경하고 떠받들어주면서 제가 좀 낡은 집에서 산다는것을 알고는 저저마다 팔을 걷고 떨쳐나 며 훌륭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었습니다.

리당위원회의 한 일군은 그러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날씨가 추워질 때면 어김없이 찾아와 새 집이 춥지는 않은가, 잃는데는 없는가 친혈육의 심정으로 따뜻이 돌봐주고 설명절에는 저의 친자식들보다도 먼저 집대문을 열고 들어와 설인사를 하고 명절을 즐겁게 쇠도록 세심히 보살펴주었습니다.

고마움의 이야기는 우리 집에서뿐만이 아니라 제가 가는 곳 어디에서나 꽃펴나고있습니다.

조국을 위하여 응당 할 일을 한 저를 온 마을사람들이 로병할머니라고 존경을 담아, 정을 담아 부르고있습니다.

운전군 관해리 6인민반
김천화

이역의 전사, 제자들에게 심어주신 불굴의 신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정세가 복잡하고 내외반동들의 책동이 우심할수록 주체의 신념과 대오의 일심단결을 보다 튼튼히 다지며 사회주의조국을 철저히 옹호하고 조국통일사업과 동포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대외활동을 활발히 벌려야 합니다.》

일본땅에 총련압살의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지고있다. 무분별한 탄압의 광풍은 렬도의 구석구석을 어지럽게 휩쓸며 재일동포사회에 공포를 몰아오려 하고있다.

하지만 일본반동들은 아직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에 대해 너무도 모른다. 어머니조국과 운명의 피줄기를 맺은 그날로부터 참다운 애국을 알고 값높은 인생의 보람을 누려온 총련동포들은 눈속에 묻힌대도 푸른빛 잃지 않는 소나무처럼, 부서져 가루되여도 흰빛을 잃지 않는 백옥처럼, 열백번 불에 타도 곧음을 잃지 않는 참대처럼 꿋꿋이, 과감히 원쑤들의 파쑈적횡포에 맞서 조국을 옹호하고 조직을 사수하고있다. 지난 60년세월 변함없이 그러했듯이.

그들의 이 투철한 애국의지는 바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심어주신것이다. 조국과 총련이 함께 고난의 언덕을 넘던 시련의 그 나날 총련이 넘어질세라, 주저앉을세라 보살피시며 신념의 대들보를 더욱 억척같이 세워주신 우리 장군님, 백두령장께서 심어주신 그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은 총련동포들에게 있어서 가는 길, 가야 할 길이 험난한 오늘과 래일에도 변함없는 신념의 무기로 되고있다.

하기에 지금 총련동포들은 절세위인의 가르치심을 받으며 필승의 신심을 가다듬던 못 잊을 나날을 돌이켜보며 시련의 전구를 향해 주저없이 나아가고있다.

언제나 총련을 잊지 않는다

주체91(2002)년 2월 어느날 인민군부대들과 공장, 기업소들에 대한 끊임없는 현지시찰의 길을 이어가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방문중에 있던 총련일군들을 몸가까이 불러주시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역의 전사들에게 총련애국사업에서 지침으로 될 고귀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그들이 부르는 노래도 들어주시며 따뜻한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어버이와 자식들간의 허물없는 육친의 정이 흘러넘치는 속에 어느덧 자정이 훨씬 지났다.

이역의 전사들은 선군혁명령도로 몹시 바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토록 오랜 시간을 자기들을 위해 바쳐주시는데 대해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올리였다. 그러는 그들을 미덥게 바라보시며 장군님께서는 나직이 말씀하시였다.

나는 총련을 더없이 존중하고 사랑하며 총련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다. 우리 조국과 인민이 력사에 류례없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할 때에도 총련을 잊지 않았다. 사실 그때 어렵고 곤난하기는 총련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총련을 영원히 잊을수 없다. …

마디마디 사랑과 정이 넘치는 그 말씀에 총련일군들은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며 어깨를 들먹이였다.

혁명발전과 정세변화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총련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신념과 의지, 락관의 나래를 달아주신 우리 장군님, 정녕 그이 아니시였다면 우리 총련이 그 준엄했던 시기에 어떻게 되였겠는가.

시련의 나날을 추억하시는듯 한동안 말씀이 없으시던 장군님께서는 지금 조국에도 돈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총련 금강산가극단과 조선대학교 등을 위해 돈을 보내주겠다고, 우리는 어려워도 총련을 지원하려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순간 사랑의 불덩이를 삼킨 총련일군들의 가슴은 격정으로 세차게 타번지였다. 다음순간 울리는 어버이의 사랑의 말씀에 흐느낌소리는 더욱 높아갔다.

몇해전의 한신대진재때에도 조국에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여 제일 어렵고 돈도 넉넉하지 못하였지만 재일동포들에게 위문금을 보내주었다. 이것은 우리의 응당한 도리이다. 그래서 잘살아도 못살아도 조국은 조국이라고 하는것이다. …

사품치는 감격의 도가니로 끓어번지는 장내에 위대한 장군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또다시 울리였다.

《조국은 총련을 생각하고 총련은 조국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주체혁명위업을 실현해나갑시다.》

비범한 예측

지금으로부터 20여년전 어느날이였다. 조국을 방문하고있던 총련의 한 책임일군을 만나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빨리 총련에 돌아가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그 일군은 영문을 알수 없어 그이를 우러렀다.

조국에 올 때면 언제 한번 마음놓고 휴식해보았겠는가고 하시며 최상의 휴식조건을 마련해주시려 늘 왼심을 쓰시던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그이께서는 근엄하신 어조로 최근 내외반동들이 반공화국모의를 벌리고있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있을수 있는 사태에 대하여 하나하나 알려주시였다. 비상한 투시력을 지니신 그이께서는 반동무리의 최근 동향에서 심상치 않은 징조를 예감하시였던것이다. 정세의 맥을 명철하게 짚으시고 나타난 현상들에서 그 본질을 대번에 파악하시는 그이의 천리혜안의 예지는 참으로 비범하였다.

아니나다를가 얼마 안있어 일본땅에서는 총련조직을 압살하기 위한 파쑈선풍이 휘몰아치기 시작하였다. 학교로 가던 동포녀학생이 정체불명의 괴한들로부터 치마저고리를 찢기우는 모욕과 폭행을 당하고 우익깡패들이 총련중앙회관앞에 몰려와 반공화국, 반총련악담을 퍼부으며 소란을 피웠는가 하면 총련일군들에 대한 비렬한 테로행위가 잇달았다.

하지만 반동들의 악랄한 반총련책동은 우리 장군님의 비범한 통찰력과 선견지명의 예지에 의해 파탄을 면치 못하였다. 장군님께서 미구하여 일본반동들이 총련을 전면탄압하기 위한 구실을 얻기 위해 모략소동을 벌릴것이라고 하시면서 그에 단호한 반격을 가하기 위한 대책을 다 세워주시였던것이다.

그 준엄한 나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본반동들의 책동이 악랄해질수록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에 대한 굳은 신심과 혁명적락관을 지니고 단결하여 더욱 용감하게 싸워나가라고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시였다.

오늘도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그 나날에 체험한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통찰력과 분석력, 천리혜안의 예지에 감탄을 금치 못한다.

조국이 철벽이면 총련도 철벽

주체81(1992)년 4월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60돐경축 열병식이 성대히 진행된지 며칠후에 있은 일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체류중이던 총련참관단 성원들을 몸가까이 불러주시였다. 그들로 말하면 성대한 열병식참관을 통해 사회주의조국의 불패성을 굳게 확신시켜주고싶으시여 우리 장군님께서 불러주신 사람들이였다. 난생처음 그처럼 큰 규모의 열병식을 보게 된 그들의 감동은 남달리 뜨거웠으며 느끼는 충동 또한 이루 형언할수 없이 컸다.

《영웅적조선인민군 장병들에게 영광이 있으라》

천지를 뒤흔드는 백두의 봄우뢰인가 찌렁찌렁 울려퍼지던 위대한 장군님의 음성이 계속 귀전에 들려와 흥분을 누르지 못하고있던 총련참관단 성원들은 뜻밖에도 장군님께서 자기들을 부르신다는 소식을 듣고 일제히 환성을 올리였다. 모두 급히 서두르며 달려가니 그곳에는 항일의 백전로장들과 강철의 정예사단들을 지휘하는 인민군장령들이 와있었다.

《?!…》

잠시후에야 총련참관단 성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무적강군의 지휘관들과의 뜻깊은 상봉을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하시였음을 알게 되였다. 조국과 이역의 동지들이 서로서로 인사를 나누며 화기애애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정겹게 바라보시던 장군님께서는 동무들이 이번에 보아서 알겠지만 우리에게는 강력한 무장력이 있다고, 당과 수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인민과 함께 강위력한 인민군대를 가지고있으며 전민이 무장하고 전국이 요새화되여있기때문에 우리 조국은 철벽이라고, 조국이 철벽이면 총련도 철벽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순간 참관단성원들은 커다란 격정에 휩싸였다. 지난날 힘이 없어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노예살이를 강요당하였던 치욕의 나날이 가슴아프게 더듬어지고 세계가 우러르고 원쑤들이 두려워하는 주체조선, 선군강국의 해외공민된 영예와 긍지가 가슴벅차게 갈마들었다.

우리 장군님의 말씀은 정말 백마디, 천마디를 대신하는 명언이였다. 그렇다. 조국이 있어 총련이 있고 조국이 철벽이니 총련도 철벽이다.

힘과 용기가 활화산처럼 솟구쳐올랐다. 그것은 불세출의 선군령장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여 조국도 총련도 영원히 철벽이라는 필승의 신심의 분출이였다.

새털이불에 대한 이야기

주체83(1994)년 2월 어느날 총련의 한 책임일군을 만나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에게 혁명적신념과 의리에 대한 고귀한 가르치심을 주시다가 문득 총련중앙상임위원회에서 자신께 올렸던 새털이불에 대한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시였다.

그이의 말씀을 듣는 순간 총련의 책임일군은 그만 눈이 휘둥그래졌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기들이 올린 그 이불을 불굴의 통일애국투사 리인모동지에게 주시였다는것이 아닌가.

장군님께서는 나직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34년간이나 차디찬 감방에서 고생한 리인모동지가 여생이나마 폭신한 새털이불을 덮고 쉬면 마음이 좀 편할것 같아 보내주었다고, 리인모동지가 쓴 헌시는 바로 그 새털이불을 받고 쓴것이라고.

총련책임일군의 가슴은 후더워졌다. 절해고도와도 같은 적구의 철창속에서 끝까지 혁명적신념과 지조를 지킨 리인모동지를 얼마나 아끼시였으면 70만 재일동포들의 정성이 어린 새털이불마저 그에게 보내주시였겠는가.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며 그는 장군님께 정중히 아뢰였다.

《어버이장군님의 뜻을 명심하고 일하겠습니다. 우리 총련에서 올린 새털이불마저 리인모동지에게 돌려주신 어버이장군님의 혁명적의리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총련일군들 누구나 감동을 금치 못할것입니다. 장군님께서 바라시는대로 우리는 혁명적신념과 의리를 변치 않고 맡은 애국사업을 잘해나가겠습니다.》

그의 결의를 들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만족한 미소를 지으시며 적구에 있는 전사들을 생각하는 자신의 마음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희미해지고있는것이 아니라 더욱더 뜨거워지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혁명적동지애의 최고화신이신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르는 총련책임일군의 가슴속에서는 사랑의 새털이불을 받아안은 리인모동지의 심정이 그대로 어려있는 노래의 구절구절이 마음의 선률을 타고 울려퍼지고있었다.

따스한 이불속에 잠들다가도
문득 깨여나 생각하는것
내 이 사랑 다 아는가 장군님사랑
…
아 김정일장군이시여 사랑의 화신
이시여

용기백배 오르라 백두산으로

주체81(1992)년 겨울 어느날이였다. 조국방문기간의 주요일정인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길을 이어가던 조청원들이 마침내 백두산으로 오르기 위해 길을 떠났다. 그런데 류달리 빨리 들이닥친 강추위로 하여 행군조건은 몹시 험난하였다. 기온이 령하30℃를 오르내리는 차디찬 날씨와 초속 수십m의 센 바람, 허리를 치는 눈길…

끝간데 없이 펼쳐진 눈바다에서는 매서운 칼바람이 눈갈기를 뽀얗게 날리며 쉬임없이 밀려왔다. 숨이 꺽꺽 막혀 도무지 전진할수 없었다. 세찬 눈보라때문에 옆사람도 분간하기 어려웠다. 걸음걸음 허리까지 푹푹 빠져드는 이 험난한 길을 과연 우리 힘으로 끝까지 헤쳐갈수 있을가. 잠시나마 주저하던 조청원들의 눈이 갑자기 빛났다. 멀리 앞쪽에서 눈길을 열어오고있는 사람들을 보았던것이다.

《인민군대다! 인민군병사들이 우리를 마중온다!》

…

너무도 기쁘고 반가와 조청원들은 군인들을 와락 부둥켜안고 눈우에서 한참이나 딩굴었다. 잠시후 군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은 그들은 그만 돌처럼 굳어졌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에 체류하고있는 조청원들이 지금 한창 백두산으로 행군하고있다는 보고를 받게 되시였다. 백두의 넋을 소중히 간직하고 돌아가려는 이역의 아들딸들의 소행이 몹시 대견하신듯 환한 미소를 지으시던 장군님께서는 문득 백두산의 날씨를 알아보시였다. 날씨가 몹시 험하다는것을 아신 그이께서는 한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시였다.

그들이 언제 백두산의 혹한을 겪어보았겠는가. 그러니 지금 얼마나 힘겨워하겠는가. 그래도 그들은 그 고난을 이겨내야 하며 기어이 백두산에 올라가보아야 한다. …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즉시 한 인민군구분대를 찾으시여 사랑의 전투명령을 주시였다.

백두산으로 가는 조청원들을 도와 눈길을 개척하라.

…

조청원들의 두볼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였다. 장군님께서, 장군님께서 우리들의 행군길을 지켜보고계시였구나.

산악도 떠옮길 억센 힘이 용솟음쳤다.

용기백배 오르자, 백두산으로! 우리 장군님께서 열어주신 사랑의 행군길따라!

마침내 백두산마루에 오르니 금시 가슴이 찡하게 열리고 눈앞이 확 트이였다. 히말라야산맥이나 알프스산이 아무리 높고 장쾌하다 한들 태양의 성산 우리 백두산에 어이 비길수 있으랴. 세계적위인, 전설적위인들의 존함으로 빛나는 백두산, 백두산을 영원히 마음속에 안고 투쟁하리라.

우리 장군님께서 열어주신 백두산에로의 행군길, 정녕 그것은 동포청년들에게 있어서 그 어떤 광풍이나 유혹에도 흔들림없이 애국의 길을 꿋꿋이 걸어나가도록 하시려는 절세위인의 웅심깊은 뜻을 깨달으며 신념의 키를 자래운 사상적성장의 길이였다.

본사기자 허영민

죄악에 죄악을 덧쌓는 총련말살책동을 당장 걷어치우라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남지구협회 대변인 담화 발표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남지구협회 대변인이 일본반동들의 범죄적인 총련탄압책동을 규탄하여 15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는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일본당국의 극악한 탄압책동을 단죄하여 발표된 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와 총련중앙대책위원회의 성명들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총련과 조선민족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며 날강도적인 적대행위인 일본반동들의 이번 폭압소동은 중남지구협회의 전체 조선공민들의 치솟는 분노와 격분을 자아내고있다고 하면서 담화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지난 세기 조선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재난을 들씌우며 죄악에 죄악만을 덧쌓아온 일본반동들이 오늘까지도 그에 대해 사죄, 반성하고 재일동포들의 신성한 권리를 보장할 대신 범죄적인 총련탄압에 광분하고있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과 총련에 대한 천인공노할 야만적인 범죄행위로서 반드시 천백배의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다.

일본의 총련탄압만행은 총련결성 60돐을 앞둔 전야에 총련을 《불법단체》, 《위법단체》로 몰아 일본사회에 반공화국, 반총련분위기를 더한층 고취시켜 우리 공화국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조치》연장놀음을 합리화하며 나아가 저들의 군국주의야망을 실현해보려는데 기본목적이 있다.

히스테리적인 총련말살책동에 광분할수록 민주주의와 인권의 불모지로서의 일본의 추악하고 비렬한 정체는 세계면전에 더욱 적라라하게 드러나 규탄과 배격만을 받게 될뿐이다.

일본당국은 똑똑히 알아야 할것이다.

지난 제2차 세계대전시기 원자탄세례를 받은 치욕도 모자라 오늘까지도 미국의 바지가랭이에 매여달려 또다시 해외침략의 개꿈을 꾸며 감히 백두산군사강국을 적대시하는 길로 계속 나간다면 이번에는 패전국의 항복정도가 아니라 지도에서 영영 사라질 구덩이만을 더욱 깊이 파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것이다.

총련일군들을 체포하고 그들의 집을 강제수색한 일본경찰당국의 범죄행위는 우리 민족의 백년숙적인 일본반동들과는 모든 과거죄과를 끝까지 결산해야 한다는 의지를 천백배로 분출시키고있다.

일본당국은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박해와 탄압책동이 자멸행위라는것을 똑바로 알고 모략적인 총련탄압책동을 당장 중지하며 체포한 우리 동포들을 즉시 석방하고 사죄해야 할것이다.

끼르기즈스딴고통련 위원장 담화 발표

박경호 끼르기즈스딴고려인통일련합회(끼르기즈스딴고통련) 위원장이 일본당국의 총련일군들에 대한 부당하고 비렬한 탄압만행을 단죄하여 14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는 지난 3월 총련중앙의장과 부의장의 자택을 강제수색하는 폭거를 감행하여 조국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의 분노를 치솟게 한 일본반동들이 12일 수많은 경찰들을 내몰아 총련일군들을 야수적으로 체포하는 만행을 또다시 저질렀다고 규탄하였다.

일본반동들의 거듭되는 총련탄압행위에는 공화국의 존엄높은 해외동포조직인 총련의 결성 60돐을 앞둔 시기에 총련을 《불법단체》, 《위법단체》로 몰아 일본사회에 반공화국, 반총련분위기를 더한층 고조시켜 공화국에 대한 그 무슨 《독자적인 제재조치》연장을 합리화하며 나아가 저들의 군국주의야망을 실현해보자는데 그 추악한 목적이 있다고 폭로하였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일본당국의 날강도적이며 극악한 적대행위는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며 총련말살을 노린 흉악한 속심의 발로라고 단죄하였다.

담화는 일본반동들이 죄악에 죄악을 덧쌓는 총련말살책동을 당장 걷어치우고 무근거하게 체포한 총련일군들을 무조건 즉시 석방할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하였다.

민주를 인양하라, 통일을 노래하라

남조선 각계층 군중 광주인민봉기자들을 추모

5.18광주인민봉기 35돐을 맞으며 남조선의 광주에서 17일 봉기자들을 추모하는 전야제가 진행되였다.

광주시민들과 로동자, 학생, 《세월》호참사유가족들을 비롯한 각계층 군중 7 000여명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지금으로부터 35년전 광주시민들이 계엄군의 살인적진압에 맞서 치렬한 벌렸던 금남로에 각계층 군중이 지역별로 행진을 하며 모여들었다.

이어 이전 전라남도청앞에서 《민주를 인양하라》, 《통일을 노래하라》는 주제로 추모모임이 있었다.

모임참가자들은 분수대앞에 설치된 무대에 1980년 5월 광주시민들이 자주, 민주, 통일의 함성을 웨치며 계엄군을 맞받아 용감히 싸웠던 그날의 투쟁을 재현하는 예술작품들을 올렸다.

또한 광주봉기자들의 념원을 짓밟고 온 남녘땅을 파쑈폭압의 란무장으로 만들고있는 괴뢰보수당국에 의해 무참히 쓰러져가는 인민들의 비참한 모습을 담은 예술작품들도 무대에 올랐다.

모임을 통해 참가자들은 봉기자들의 념원을 잊지 않고 민주와 인권, 평화를 위해 당국의 폭압에 맞서 끝까지 싸워나갈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날 전야제에 앞서 북구 운정동에 있는 5.18국립묘지에서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식이 진행되였다.

【조선중앙통신】

괴뢰당국의 반인민적악정을 규탄하는 남조선인민들

로씨야대통령 무장장비강화를 위한 과업 제시

로씨야대통령 울라지미르 뿌찐이 최근 무력발전에 관한 협의회에서 무장장비를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였다.

그는 위대한 조국전쟁승리 70돐 경축열병식에서 보여준 륙군의 모든 군사기술장비들의 시험을 최단기간안에 끝내고 계렬생산에로 넘어가야 한다고 말하였다.

전망적인 미싸일체계개발사업이 원만히 진척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고 그는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제적안정을 유지하는데서 특수한 역할을 놀고있는 전략핵무력과 항공우주방어군이 제시된 임무를 즉시에 집행할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테로를 부추기는 미국의 시도를 비난

이란국회 국가안전 및 대외정책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외국방문과정에 한 발언에서 테로를 조장하려는 미국의 그릇된 시도를 비난하였다.

미국이 지역의 극단분자들에게 군사훈련을 주려고 획책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그는 이것을 테로를 부추기는 불법무도한 행위로 락인하였다.

그러한 기도는 혐오스럽고 비렬한 미국의 진면모를 더욱 드러낼뿐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사회경제발전을 위한 노력

고속도로건설계획

인도네시아정부가 동부지역에 새로운 고속도로를 건설할것을 계획하고있다. 지역의 도시들을 련결하게 되는 이 고속도로는 연장길이가 3 985㎞에 달하며 2019년까지 완공될것이라고 한다. 정부가 도로공사에 많은 자금을 할당하기로 하였다. 10일 이 나라 대통령이 밝혔다.

도시화계획 추진

가나정부가 최근 도시화계획을 적극 다그치고있다.

정부는 2012년부터 도시화정책을 실시하고 그 실현에 많은 자금을 돌리였다.

나라의 도시화가 실현되면 빈궁청산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게 된다고 한다.

전기화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

케니아에서 전기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난 2년동안에 전기덕을 보는 주민수가 110만명 더 늘어났다.

나라에서는 2017년까지 70%의 전기화를 실현할 목표를 내세우고 전력공급망을 현대화하고 전력생산원가를 낮추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있다.

미군기지이설반대시위

일본의 오끼나와현에서 15일 미군기지이설을 반대하는 대중적인 시위가 벌어졌다.

당국이 후덴마미공군기지의 이설지로 지정된 헤노꼬연안지역에서 기지건설을 다그치려 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일어난 시위에는 약 1 200명의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일미사이에 체결된 미군기지이설계획을 견결히 반대한다고 하면서 이를 걷어치울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돌림감기에 의한 인명피해

세계적으로 해마다 25만~50만명이 돌림감기에 걸려 목숨을 잃고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가 이에 대해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재생에네르기개발

오늘 세계적으로 에네르기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있는 가운데 재생에네르기개발리용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있다.

인간의 생존과 발전에 엄중한 위협을 조성하고있는 지구온난화를 초래한 주되는 요인이 온실효과가스의 대량적인 방출에 있다는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다.

산업혁명때부터 공업의 식량으로 되고있는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의 지나친 사용은 생태환경을 파괴하고 기후변화를 초래하여 막대한 경제적손실을 끼치고있다.

이로부터 온실효과가스를 전혀 방출하지 않는 태양열, 풍력 등 재생가능한 에네르기의 개발리용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있다.

세계적인 에네르기기술발전추세에 따라 여러 나라들에서 태양에네르기를 개발리용하기 위한 사업이 적극 추진되고있다.

현재 인류는 태양빛전지판으로 태양빛을 전기로 전환시키거나 태양열로 물을 가열하여 얻어지는 증기로 타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기도 한다.

최근 브라질에서 태양빛전지판을 물우에 설치한 태양에네르기발전소를 건설하였다.

띄움식태양빛전지판은 전기를 생산할뿐아니라 물면을 가리워주어 수분의 증발을 줄임으로써 가물현상이 자주 나타나는 지역의 물원천을 보호해준다.

인디아, 오스트랄리아 등 많은 나라들에서도 이러한 띄움식태양빛전지판을 리용하고있다.

한편 세계풍력에네르기리사회가 예측한데 의하면 세계적인 풍력발전능력은 2020년에 가서 6억 6 610만kW로 될것이라고 한다.

이밖에도 새로운 에네르기원천을 찾아 리용하기 위한 사업들이 적극화되고있다.

영국의 스코틀랜드동북부의 앞바다에서는 조수력타빈을 바다밑에 설치하고 조수력을 리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려는 계획이 추진되고있다.

바다물속은 날씨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기때문에 전력을 안정적으로 생산할수 있다고 한다.

이 나라에서는 3.5㎞ 되는 수역에 160m간격으로 타빈을 고정시킬 계획이다.

타빈날개의 제일 웃부분이 바다물면으로부터 일정한 깊이에 놓이게 설치되는것으로 하여 선박의 항행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

현재 4개의 조수력타빈을 시험적으로 가동시키고있는데 2020년대 전반기까지는 40만세대분에 해당되는 전력을 생산할 목표를 세우고있다.

이 나라에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네르기를 리용하여 전력수요를 100% 충족시키려 하고있다.

어느 한 나라에서는 못쓰게 된 비닐주머니를 비롯한 파비닐을 전기생산용연료로 전환시키는데 성공하였다.

바다가에 위치한 재생에네르기공장에서는 회수한 비닐주머니를 비롯한 파비닐을 분쇄한 다음 이물을 없애고 남은 비닐을 2차분쇄한 후 압축, 성형공정을 거쳐 덩어리모양의 연료로 만든다고 한다. 이것들을 연소로에 넣고 태우면 1 000℃이상에 달하는 열에네르기를 얻을수 있다고 한다.

파비닐을 태우는 과정에 생기는 유해가스는 일련의 화학처리공정을 거쳐 무해가스로 전환된다고 한다.

파비닐을 리용한 전기생산은 생산원가가 석탄이나 천연가스, 석유를 리용한 전통적인 발전방식의 10분의 1밖에 안된다. 이 재생에네르기공장에서는 파비닐전기생산공정을 도입한 후 여기에서 나오는 전기를 부근의 큰 식료공장에 보장해주고있다. 이러한 새 에네르기개발은 전망성있는 사업으로 간주되고있다.

에네르기개발을 다각적으로, 전면적으로 다그쳐 에네르기부족현상을 극복하려는 세계 여러 나라들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것이다.

김수진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기업체들에서 리윤 손실

일본의 자동차부분품제작업체인 다까따회사에서 2014회계년도에 리윤손실액이 295억 6 000만￥에 달하였다.

이 기간 미즈오그룹과 스미또모 미쯔이그룹을 비롯한 5개 금융독점체들에서는 리윤이 그 전회계년도에 비해 3.4% 줄어들었다 한다.

고병원성조류독감 전파

미국에서 최근 조류독감이 급속히 전파되고있다.

네브라스카주당국은 주에 있는 한 가금목장에서 H5N2형 고병원성조류독감비루스에 감염된 닭들이 발견되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170만마리의 닭들을 도살하는 등 소동이 벌어지고있다.

국가채무 증대

에스빠냐에서 3월에 국가채무가 1조 470억€에 달하였다. 이것은 그 전달에 비해 62억 8 300만€ 더 많은것이라 한다.

14일 이 나라 중앙은행이 밝혔다.

탈세행위 성행

오스트랄리아에서 대기업체들의 탈세행위가 성행하고있다.

최근 이 나라 정부가 밝힌데 의하면 국내에 있는 30개의 다국적기업체들이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세금을 물지 않았다고 한다.

탈세행위로 국가수입이 대폭 줄어들고 그와 관련한 조사를 벌리는 등 물의가 일어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ㄱ-510790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